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보훈 일력 365

독립·호국·민주를 위해 헌신한 인물 & 사건을
하루 한 장으로 배운다!



국가보훈부

1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서른한 해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으니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꿈꾸며
우리 독립 사업에 헌신하겠다.”

이봉창

(독립운동가, 1901년 8월 10일 ~ 1932년 10월 10일)

1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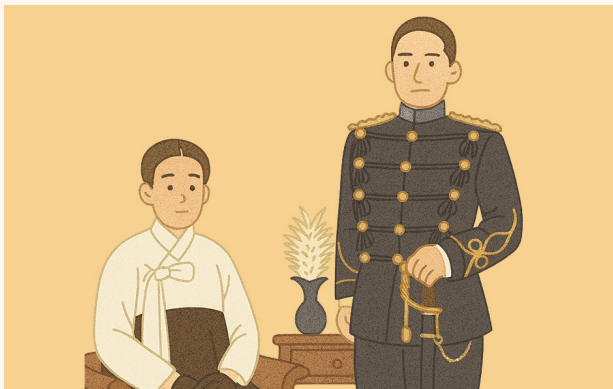
올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축하식 개최

1921년 오늘, 중국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년축하식을 열었어요. 비록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지만,
독립의 희망을 잃지 않고 새해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1월

2



만주를 호령한 조선의 나폴레옹

김경천

‘백마 탄 김장군’으로 불리며 일본군을 두려움에 떨게 한 김경천 장군이 1942년 오늘 서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였지만 조국을 위해 만주로 망명했고, 독립군을 이끌며 큰 활약을 펼쳤답니다.

1월

3



독립운동의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

국민대표회의 개최

1923년 오늘, 상하이에서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열었어요. 비록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1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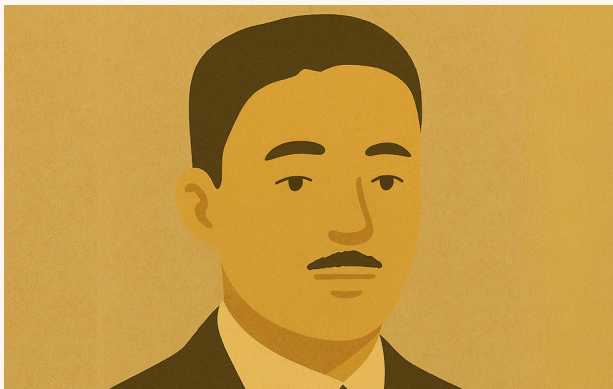
홀로 840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

홍대선 하사 순국

1952년 오늘, 홍대선 하사는 스스로 표적이 되어 적군의 사격을 유인했어요. 그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840여 명의 피난민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지요.

1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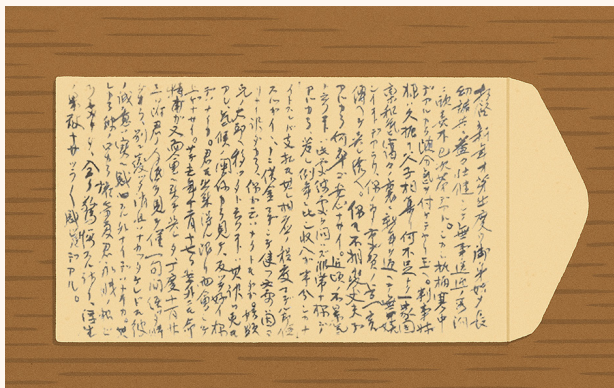
도쿄 궁성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

김지섭 의사 의거

1924년 오늘, 김지섭 의사는 일제의 심장부인 일본 왕궁 앞 니주바시(二重橋)에 폭탄을 던졌어요. 의거는 실패했지만,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과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6

1월



“모두 별고 없는가? 나는 강건하다.”

김지섭 의사 편지

김지섭 의사는 거사 직후부터 한동안 가족, 친지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은 물론, 독립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가득 담겨 있지요. 일제는 김지섭 의사를 체포, 구금, 고문했지만 그의 기개까지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1월

7



조국에 잠든 불꽃

국립대전현충원

일본에서 순국하신 김지섭 의사의 유골은 여러 곳을 거친 뒤, 2004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으로 이장되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김지섭 의사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1월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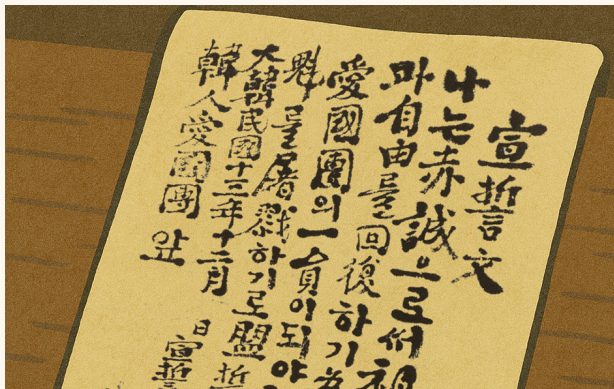
도쿄에 올린 독립의 함성

이봉창 의사 의거

1932년 이봉창 의사는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의 용감한 의거는 침체되었던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

1월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꾼 운명적 만남!

이봉창, 김구 만남

이봉창 의사는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 한민애국단에 가입했어요. 그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상하이로 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죠.

1월

10



꺼지지 않는 의거의 불꽃

이봉창 의사 동상

서울 효창공원에는 이봉창 의사의 동상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은 1932년, 도쿄에서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던 그의 용감한 의거와 조국을 향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독립을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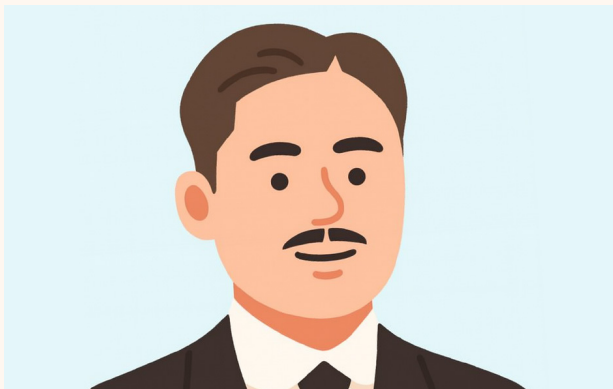
조국의 하늘을 꿈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1901년 오늘, 권기옥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래 비행사가 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고된 훈련을 마친 뒤, 그는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며 우리 민족의 기개를 떨쳤습니다.

1월

12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

1923년 오늘, 김상옥 의사는 일제 탄압의 상징이었던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어요. 의거 이후에도 홀로 수백 명의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1월

13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김상옥 의사 순국

종로경찰서 의거 열흘 뒤, 김상옥 의사는 서울 시내에서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어요. 마지막 한 발의 총알로
자결하며 순국하여, 그의 용맹함은 오늘날까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1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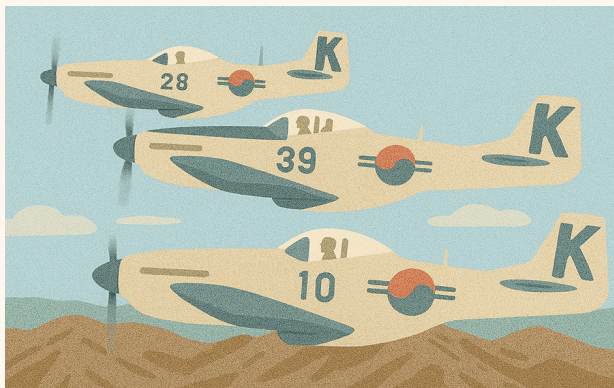
도심 속 독립의 불꽃

김상옥 의사 동상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 김상옥 의사의 동상을 만날 수 있어요. 젊음과 문화의 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동상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청년 영웅의 용맹함과 숭고한 정신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월

15



대한민국 공군이 이룬 쾌거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1952년 오늘, 우리 공군은 6·25 전쟁 중 평양 인근의 중요한 보급로였던 승호리 철교를 폭파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는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한 중요한 작전이었지요.

1월

16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

F-51D 무스탕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F-51D 무스탕 전투기를 인수했어요. 이 전투기는 전쟁 기간동안 맹활약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켰답니다.

1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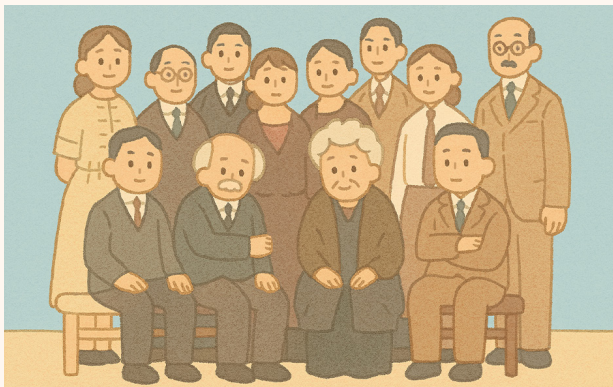
“내 육신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

박열 의사 순국

1974년 오늘, 박열 의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일본에서
‘흑도회’ 등 여러 단체를 조직하여 항일 운동을 펼쳤는데요.
일왕 암살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20년 넘게 옥고를 치르는 등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1월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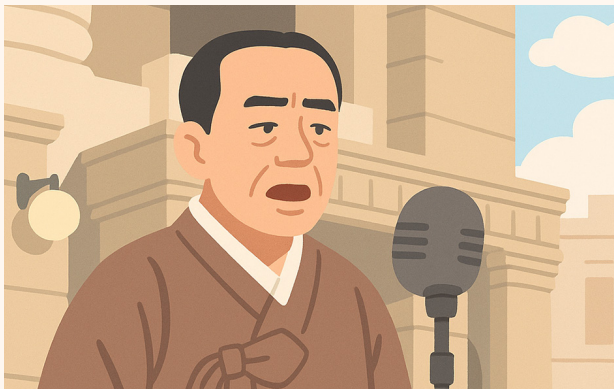
세계에 독립을 호소할 기회

파리 강화회의 개최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뒤처리를 위해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었어요. 우리 민족은 이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일제 지배의 부당함을 알리고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1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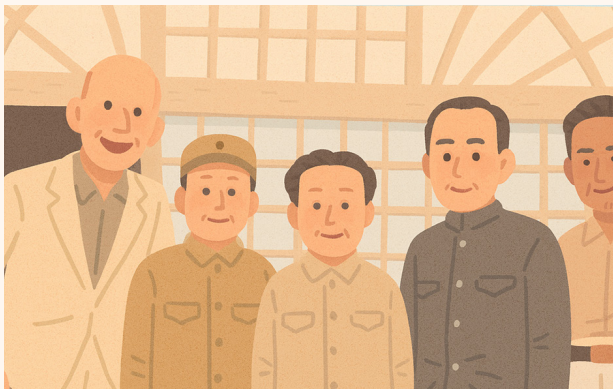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뜻을 파리에 알린 대표

김규식

김규식 선생은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 파견되었어요. 그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외교술을 바탕으로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전파하며, 우리의 뜻을 알렸습니다.

1월

20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운 미국인 선교사

조지 애쉬모어 피치

1979년 오늘,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위험에 처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고마운 분이예요. 특히 일제의 추격을 받던 백범 김구 선생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요.

1월

21



한국인 특허 1호의 주인공

정인호

한국인 최초의 특허는 일제강점기 때 정인호 선생이 만든 말총 모자로, 그는 발명가이자 독립운동가였지요. 특허를 바탕으로 민족기업을 성장시킨 선생은 대한독립구국단을 결성해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독립운동가들을 도왔습니다.

1월

22



도끼를 들고 올린 상소

최익현 <지부복궐척화의소>

1876년 오늘, 면암 최익현 선생은 나라의 문을 여는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며, '내 목을 먼저 치라'는 의미로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얹드려 상소를 올렸어요. 비록 선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외세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의 강직한 선비정신과 애국심은 오늘날까지 큰 울림을 줍니다.

1월

23



붓으로 싸운 독립운동가들

선비들의 상소문

옛날 선비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임금님께 자신의 뜻을 담은 '상소'를 올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 했어요. 특히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시기, 유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상소를 통해 저항의 뜻을 밝혔답니다. 이들의 꺾이지 않는 정신은 훗날 의병 항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1월

24



청산리 대첩의 영웅

백야 김좌진

1930년 오늘, 김좌진 장군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만주에서 북로군정서를 이끌고,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었어요. 우리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영웅 중 한 분이지요.

1월

25



“모두 끓는 물과 불 속으로 나갈지어다.”

유인석

의암 유인석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본에 맞서 싸운 대표적인 의병장이예요. 그는 제천을 중심으로 의병 부대를 이끌었고,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을 계속하는 등 평생을 구국 투쟁에 헌신했어요.

1월

26



모두가 독립운동가!

독립을 외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은 군인이나 지도자뿐만이 아니었어요. 남궁억 선생님은 학교에 무궁화를 심으며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가르쳤고, 안희제 선생은 백산 상회를 통해 비밀리에 독립 자금을 지원했지요. 이처럼 모두의 용기가 모여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월

27



바다의 여성들, 일제에 맞서다!

제주해녀항일운동

1932년 1월, 제주도의 해녀들은 일제의 부당한 취에 맞서 대규모 항일 운동을 벌였어요. 이는 여성 주도의 항일운동으로, 우리 여성들의 강인한 독립 의지와 용기를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월

28



민족의 노래

아리랑

일제강점기의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어요. 나라 잃은 슬픔과 독립을 향한 저항 정신을 담은 노래였지요. 특히 1926년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은 이 노래를 전국에 퍼뜨리며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월

29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 나랏빛을 갚자!”

국채보상운동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 진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아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 한 운동이에요. 남성은 담배를 끊고, 여성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으며 동참했지요.

1월

30



국채보상운동의 정신, 세계인의 기록이 되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채보상운동은 비록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족운동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이와 관련된 기록물들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1월

31



1월의 보훈, O/X 퀴즈로 복습해요!

1.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O/X)

2. 국민대표회의는 국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연 회의다.

(O/X)

3. 국채보상운동은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O/X)

(1월 1일: 1월 1일 / 2월 1일: 2월 1일 / 3월 1일: 3월 1일)

2

월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별 헤는 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수록

윤동주

(시인, 1917년 12월 30일 ~ 1945년 2월 16일)

2월

1



비폭력으로 독립을 이끈 조선의 간디

고당 조만식

고당 조만식 선생은 비폭력으로 나라를 지키려 한 민족 지도자로 '조선의 간디'라 불렸어요. 그는 “우리 물건을 쓰자”고 외치며 물산장려운동을 앞장서 이끌었고,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기르고 우리 물건을 아끼며 사랑하도록 큰 역할을 했어요.

2월

2



동상으로 되새기는 꺾이지 않는 신념

조만식 선생 동상

서울 어린이대공원에는 ‘조선의 간디’ 고당 조만식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평생을 민족 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선생의 뜻을 어린이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에 동상을 세웠답니다. 나라를 사랑한 위대한 어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세요.

2월

3



우리나라의 상징 태극기

태극기 이야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닮은 하얀 바탕에, 세상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뜻의 태극 문양, 그리고 하늘, 땅, 물, 불을 뜻하는 4괘가 모여 우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멋진 국기예요.

2월

4



한반도 분단의 씨앗

알타회담

1945년 오늘,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모여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알타 회담이 열렸어요. 이 회담을 계기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되고 한반도 신탁통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훗날 분단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2월

5



반격의 신호탄

라운드업 작전

라운드업 작전은 한국전쟁 때 한강 남쪽에서 홍천까지 중요한 지역을 되찾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국군이 앞에서 싸우며 2월 5일 작전을 시작해 초반에는 잘 나아갔지만, 중국군의 센 방어에 막혀 더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목표의 일부만 되찾을 수 있었어요.

2월

6



전쟁이 낳은 음식

부대찌개

부대찌개는 1960년대 미군 부대가 있던 의정부와 동두천에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전쟁 후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소시지에 김치와 두부 등을 넣어 끓여 먹던 것이 시작이었죠. 지금은 많은 사람이 즐기는 인기 K-푸드가 되었어요.

2월

7



상하이를 뒤흔든 의열 투쟁가

창산 강창제

강창제 선생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의열단원으로 활약하고 '병인의용대'라는 단체에 참여하여 의열 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예요.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일본 영사관 창고를 폭파하고 밀정을 처단하는 등, 상하이를 무대로 항일 투쟁을 펼쳤으며 1965년 오늘 서거하셨습니다.

2월

8



도쿄 유학생들의 외침

2·8 독립선언

1919년 오늘, 일본 도쿄에 유학 중이던 우리나라 학생들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했어요.
이 용감한 외침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답니다.

2월

9



2·8 독립선언의 열기를 국내로 전파한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김마리아 선생은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뒤,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독립선언문을 기모노 허리띠에 숨겨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전국을 돌며 독립의 열기를 전파하여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2월

10



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진 곳

도쿄 조선 YMCA 회관

2·8 독립선언이 열렸던 도쿄 조선 YMCA 회관은 당시 일본 유학생들의 중요한 모임 장소였어요. 학생들은 이곳에 모여 조국의 현실을 걱정하고,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계획하며 민족의 정신을 지켜나갔던 소중한 공간입니다.

2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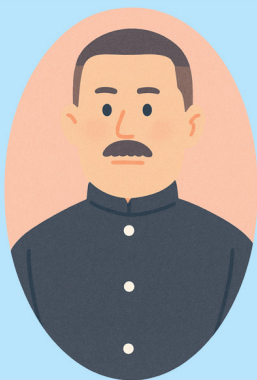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을 지켜라!”

후세 다쓰지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는 일제의 부당한 재판에 맞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는 2·8 독립선언으로 체포된 학생들과 박열 의사를 위해 무료로 변호에 나섰죠. 우리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일본인으로서는 처음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2월

12



한국독립군을 이끈 독립운동가

추당 김창환

추당 김창환 선생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생 노력한 독립 운동가예요. 신민회 활동을 시작으로 만주에서 독립군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조직의 지도자로 활동했어요. 또한 한국독립당 창당과 독립군 전투에도 힘을 보였으며,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분이예요.

2월

13



전쟁의 흐름을 바꾼 3일의 혈투

지평리 전투

1951년 오늘, 지평리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중공군의 거센 공격에 미군과 프랑스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포위되었지만, 며칠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적을 물리치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6·25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2월

14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의거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

1910년 오늘,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의거 후 뤼순 감옥에서 일제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재판정에서도 자신의 의거가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2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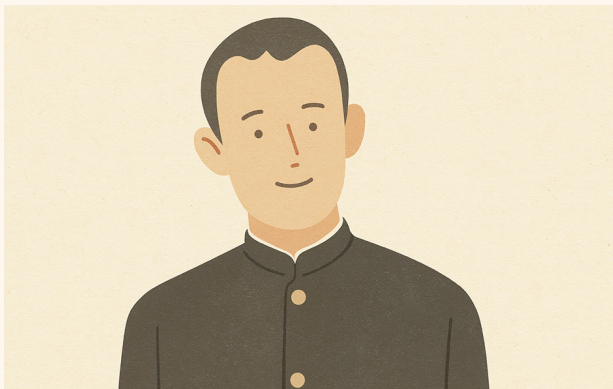
민족의 힘을 하나로!

신간회 창립

1927년 오늘, 당시 나뉘어 있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 단결'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합쳐 '신간회'를 창립했어요. 이는 당시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항일 사회 운동 단체였습니다.

2월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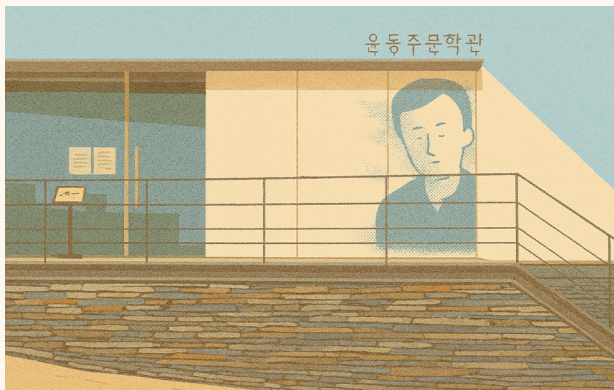
별이 된 시인

윤동주

1945년 오늘, 시인 윤동주가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일제 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아름다운 우리말로 저항과 희망의 시를 남겼습니다.

2월

17



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며

윤동주문학관

윤동주문학관은 시인 윤동주의 삶과 작품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이곳에서는 그의 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별 헤는 밤〉 같은 작품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2월

18



항일문학가들의 소망

독립운동가의 시

항일문학가들은 글로 나라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에요. 한용운·이상화·심훈·이육사·윤동주 등 많은 시인이 독립과 자유를 꿈꾸며 용기 있는 작품을 남겼어요. 이들의 시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며 독립 의지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2월

19



일제에 맞서 싸운 문화투쟁

민족 정신을 키운 예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전통 문화를 지키고 민족 정신을 키우려고 했어요. 영화, 연극, 노래처럼 예술로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보여 줬어요.

2월

20



조국을 위해 하늘을 날다!

한인비행사 양성소

1920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인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했어요. 이는 앞으로 있을 독립 전쟁을 대비하여 직접 비행사를 키우려는 임시정부의 원대한 꿈이 담긴 곳이었답니다.

2월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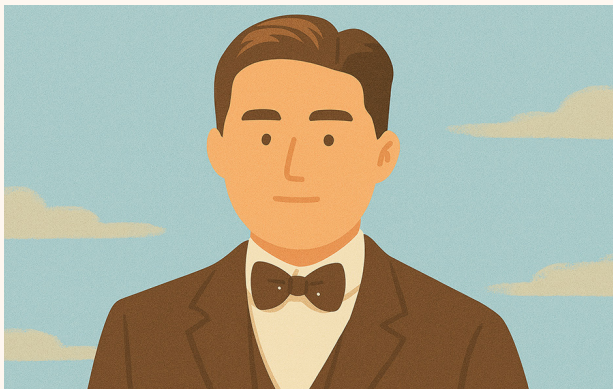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노백린

노백린 장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으로서, 앞으로 있을 독립전쟁에서는 제공권 장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선견지명과 강력한 의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가 세워졌습니다.

2월

22



독립에 투자한 ‘쌀의 왕’

김종림

한인비행사 양성소 설립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어요.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쌀 농사로 큰 부자가 된 김종림 선생은 “독립운동에 보태라”며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아 비행 학교 설립의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2월

23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긴 날

한일의정서 늑결

1904년 오늘, 일본은 러일전쟁 중 대한제국을 위협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늑결)했어요. 이 조약으로 일본은 우리의 영토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국권 침탈의 길을 열었습니다.

2월

24



한일의정서의 배경

러일전쟁

1904년 당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큰 전쟁(러일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제국 영토를 군사 기지처럼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이를 위해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위협해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맺게 한 것입니다.

2월

25



국권 침탈의 아픔이 서린 곳

덕수궁 증명전

한일의정서와 이후 을사늑약 등 국권을 빼앗기는 아픔의
조약들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가 바로 덕수궁 증명전이에요.
아름다운 궁궐이지만, 나라의 힘이 약했을 때 겪어야 했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26

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ㄱ	기	ㄷ	ㄹ	ㅂ	ㅅ	0	ㅈ	ㅊ	ㅊ	ㅊ	ㅊ	ㅊ
12	동	-	-	ㅅ	ㅅ	ㅅ	ㅅ	ㅅ	0			
14	1	2	3	4	5	6	7	8	10			
13												
10			동	西		南	北					
9			ㅈ	ㅈ		ㅈ	ㅈ					
9												
12			東	ㅈ		서	四					
-				ㅅ		ㅅ	ㅅ					

음
후
부

첩보 영화 같은 은밀한 문서

독립운동의 비밀 암호 이야기

독립운동가들은 문서가 일본 경찰에 발각돼도 내용을 들키지 않도록 비밀 암호를 사용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꿔서 적는 방식이었죠. 이후 독립운동 단체마다 각자 다른 암호를 사용하고, 세 자릿수 이상을 쓰거나 산술식을 더하는 등 암호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월

27



만주에서 독립의 씨앗을 뿌린

한계 이승희

한계 이승희 선생은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의병을 일으키려 했던 위정척사계열의 독립운동가예요. 이후 만주로 망명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기반을 만들며 우리 민족이 스스로 힘을 키우도록 노력했어요.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1916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2월

28



대구 학생들의 용감한 외침

2·28 민주운동 기념일

1960년 오늘,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은 불의한 정권의 부당한
일요 등교 지시에 맞서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어요. 2·28 민주운동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적 저항 운동으로, 학생들의 용기와 정의감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2월

29



2월의 보훈, O/X 퀴즈로 복습해요!

1. 2.8 독립선언은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주도했다.

(O/X)

2. 신간회는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O/X)

3. 알타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결정되었다.

(O/X)

(해) 1: 한국 독립 운동 'X' 2 / (통) 1: 일본 공민단 설립 'X' 2 / (O) 1: 보훈

3월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손병희

(독립운동가, 1861년 4월 8일 ~ 1922년 5월 19일)

3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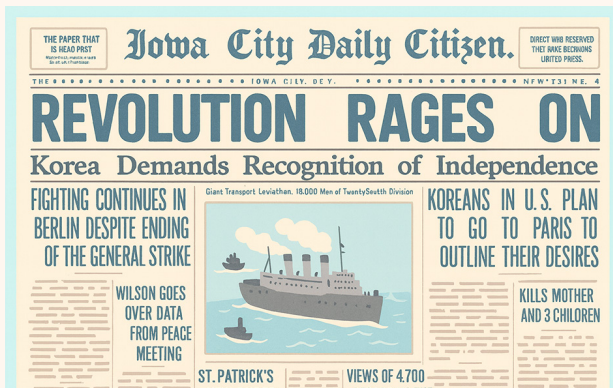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3·1절

1919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항거하여 전국 곳곳에서 독립을 외쳤어요. 3·1운동은 학생, 상인, 농민 등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입니다.

3월

2



세계를 놀라게 한 비폭력 평화 정신

3·1운동

3·1운동의 비폭력 평화 정신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를 계기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가 세계 널리 알려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3월

3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의암 손병희

의암 손병희 선생은 동학을 천도교로 발전시킨 지도자이자,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서 3·1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는 3·1운동의 계획과 자금 지원 등 핵심 역할을 하며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섰습니다.

3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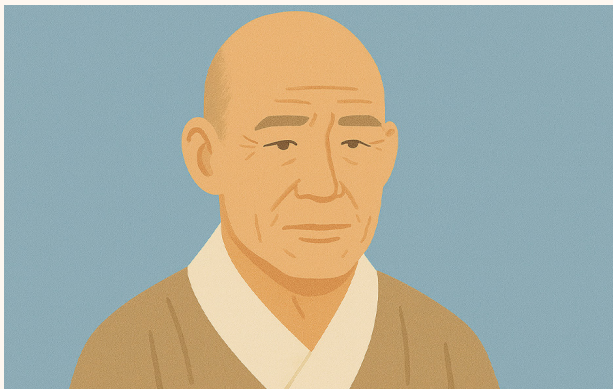
민족의식의 씨앗을 뿌린 교육자

남강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이자, 기독교계를 대표한 민족대표 33인이었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고, 3·1운동에 기독교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월

5



저항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만해 한용운 선생은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불교계를 대표한 민족대표 33인이었어요. 그는 독립선언서 ‘공약 3장’을 추가하여 비폭력 평화 운동의 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체포된 후에도 끝까지 독립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6

3월



3·1운동의 시작점

탐골공원 3·1 독립선언기념탑

서울 종로 탐골공원에는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3·1 독립 선언기념탑’이 세워져 있어요. 이곳은 1919년 3월 1일, 학생들이 모여 처음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역사적인 장소랍니다.

3월

7



3·1운동의 정신을 담은 노래

삼일절 노래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예요. 정인보 선생의 가사, 박태현 선생이 곡을 붙였죠. 매년 3월 1일이 되면 전국에 울려 퍼져 그날의 함성과 감동을 되새기게 하지요.

3월

8



민주주의를 지킨 대전의 함성

3·8 민주의거

1960년 오늘, 대전 지역의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3·8 민주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중요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습니다.

3월

9



3·8 민주여거의 주역

대전의 고등학생

당시 대전고, 대전상고, 대전공고 등 대전 지역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용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3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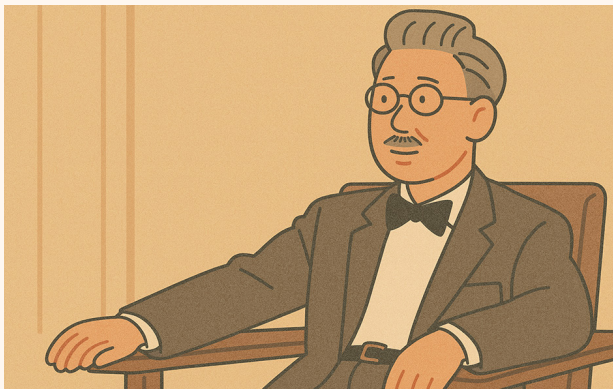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꾼 토론회

만민공동회 개최

1898년 오늘, 독립협회 주도로 서울 종로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토론회 ‘만민공동회’가 열렸어요.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3월

11



동포를 위해 의약품 사업을 시작하다

유일한

유일한 박사는 유한양행을 설립한 기업가이자, 자신의 성공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친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는 비밀리에 독립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광복군 작전에 참여했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습니다.

3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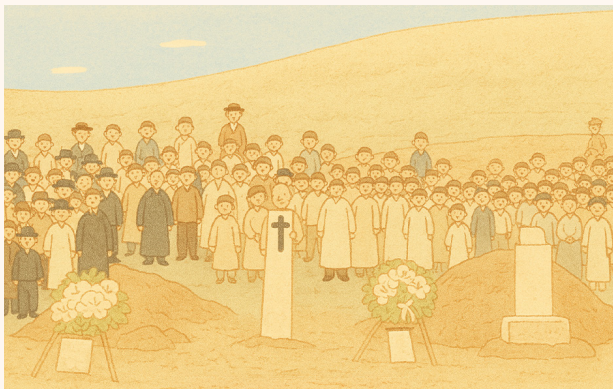
독립운동의 숨은 조력자

군자금 모금

독립운동은 총칼로만 싸운 것이 아니에요. 부산의 '백산상회'는 무역회사로 위장해 임시정부에 비밀 자금을 보냈고, 경주 최부잣집은 대대로 모은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내놓았어요. 또한,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은 노동으로 번 돈을 아껴 독립 의연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3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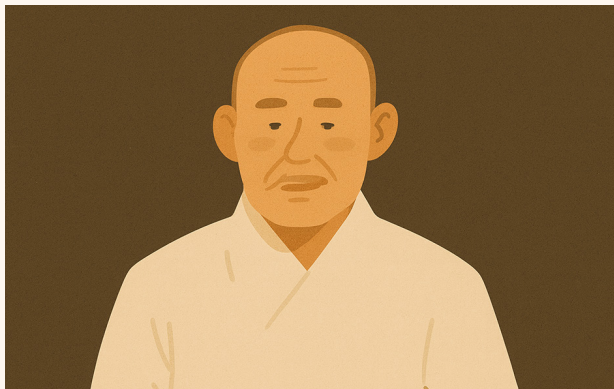
북간도 용정의 뜨거운 함성

3·13 만세운동

1919년 3·1운동의 정신이 만주까지 퍼지며 북간도 용정에서 일어난 큰 시위예요. 한인들은 우리 민족도 자유로운 나라를 원한다는 뜻을 보여주었어요. 비록 중국 군대의 탄압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세상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3월

14



북간도 독립운동의 아버지

규암 김약연

규암 김약연 선생은 북간도 지역의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교육자였어요. 3·13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시위를 이끄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민족 교육을 위해 명동학교를 세워 운동주 시인 등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3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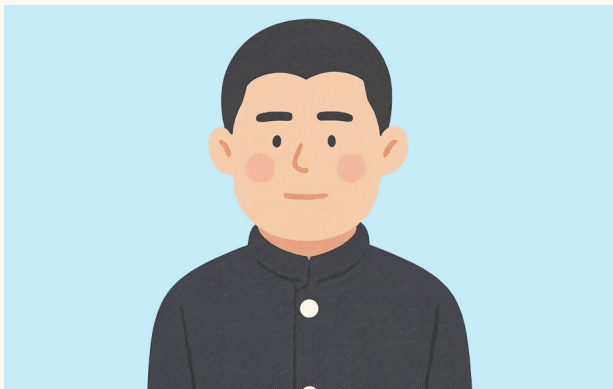
불의에 맞선 마산 시민들의 외침

3·15 의거

1960년 마산에서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도 굴하지 않던 마산 시민들의 의로운 항거는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월

16



4·19 혁명의 도화선

김주열 열사

3·15 의거에 참여했다 실종된 학생 김주열 군이 약 한달 뒤,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되었어요. 그의 희생은 불의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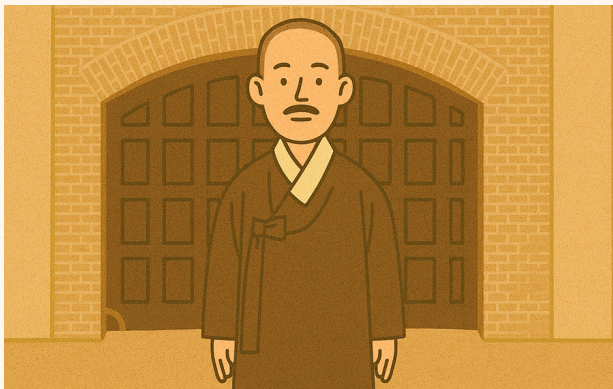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그는 명문가의 자제였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여섯 형제 모두와 함께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했어요. 그 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의 상징입니다.

3월

18



3·1운동 민족대표

동오 신홍식

동오 신홍식 선생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기독교계를 대표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신 분이세요. 이 일로 2년간의 옥고를 치렀으며, 1939년 오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3월

19



한국을 사랑한 한국전의 영웅

제임스 밴 플리트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은 한국전쟁 때 한국을 돕기 위해 온 미국 장군이에요. 그는 한국군을 훈련시키고 힘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해서 '한국군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요. 전쟁 후에도 한국의 재건을 도우며 한미 우호를 위해 힘쓴 고마운 분이예요.

3월

20



105인 사건

99인의 무죄 판결

1911년 일제는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를 없애기 위해 ‘105인 사건’을 꾸며 105명의 애국지사를 재판에 넘겼어요. 하지만 1913년 오늘, 2심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99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이는 일제의 부당한 재판에 맞서 일부나마 정의를 되찾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3월

21



쿠바의 독립운동가

안수명

2025년 오늘, 독립운동가 안수명 선생이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멕시코와 쿠바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안순필 의사의 아들로, 쿠바 아바나에서 한인청년단을 이끌며 조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섰지요.

3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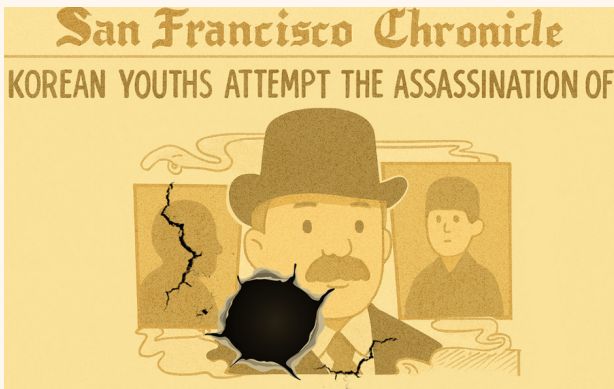
세계를 무대로!

해외에서 싸운 독립운동가들

미국 하와이에서는 박용만 선생이 독립군을 키우기 위해 군사 훈련을 실시했고, 유럽에서는 황기환 선생이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우리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3월

23



샌프란시스코에 올린 총성

스티븐스 저격사건

19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 전명운 의사는 대한제국 침략에 앞장섰던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했어요. 이는 미주 동포 사회의 독립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월

24



의거의 현장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

스티븐스의 의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 앞에서 일어났어요. 당시 이곳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였죠.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의 관문에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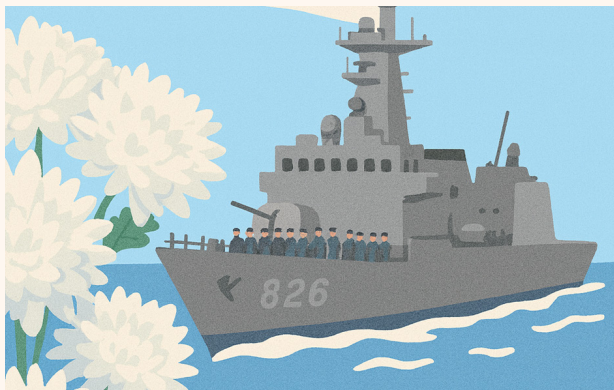
“조국의 바다를 지킨 영웅들을 기리며”

서해수호의 날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이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에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55명의 용사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월

26



천안함 피격 사건

47인의 용사를 기억하다

2010년 오늘,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어요. 이로 인해 46명의 용사가 전사하고, 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습니다.

3월

27



“자식 같은 아이들이 물 아래 있어
잠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주호 준위

한주호 준위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실종된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벌이다 안타깝게 순직한 그의 희생은, 전우를 먼저 생각한 진정한 군인 정신과 전우애를 보여줍니다.

3월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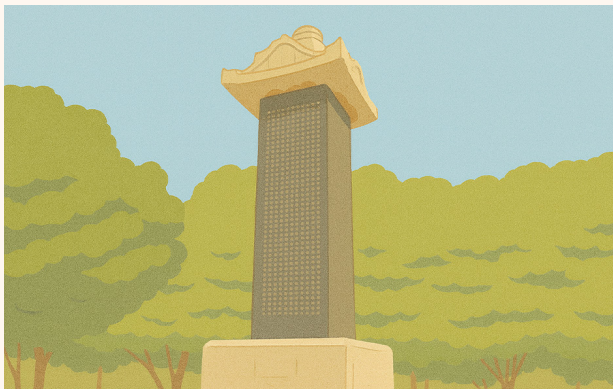
서해를 지키던 영웅들의 마지막 흔적

천안함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서해 수호관에는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의 선체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요. 두 동강 난 채 인양된 선체는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과 47명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3월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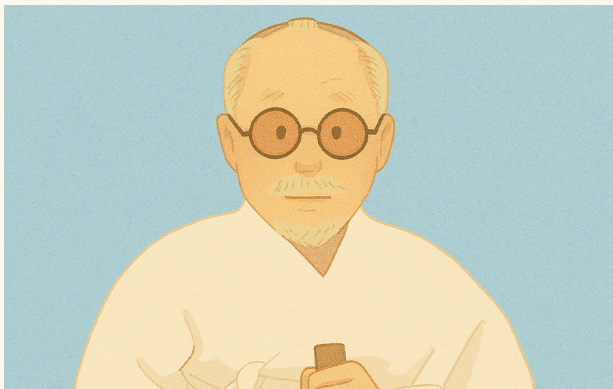
유림들의 독립 청원

유림단 파리장서 제출

1919년 오늘, 김창숙 등 전국의 유림 대표 137명은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파리장서)를 보냈어요. 이는 유림 사회가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3월

30



파리장서 운동의 주역

심산 김창숙

심산 김창숙 선생은 파리장서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유학자 독립운동가예요.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평생 독립운동과 민족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31



1.3.1운동은 학생들만 참여한 운동이다.

(O/X)

2. 만민공동회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한 대규모 토론회였다.

(O/X)

3.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용사들만 기리는 날이다.

(0/x)

4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독립운동가, 1902년 12월 16일 ~ 1920년 9월 28일)

4월

1



천안 아우내 장터에 울려 퍼진 함성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1919년 오늘, 충남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격렬한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이날의 시위는 3·1운동 당시 중부지방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만세운동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4월

2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은 당시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주도했어요. 3·1운동으로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으로 내려와, 직접 태극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3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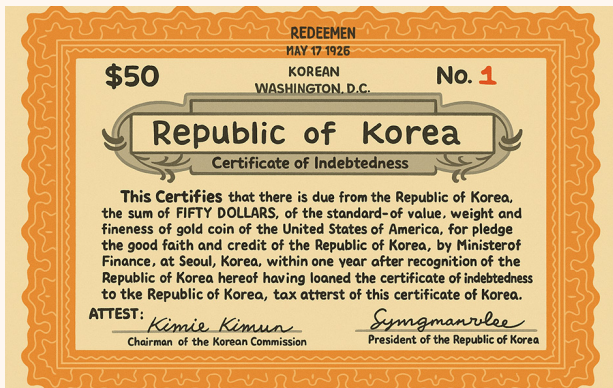
제주도민의 아픈 역사

제주 4·3 사건

제주도에서는 남한만 선거를 두고 갈등이 있었고, 1947년 삼일절 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주민들이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1948년 4월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대해 일어났고, 군인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어요.

4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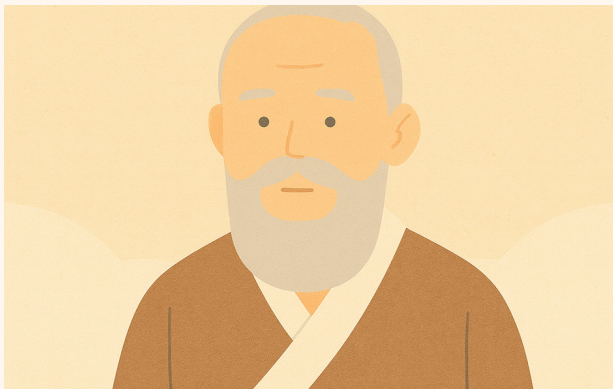
독립을 향한 투자

독립공채 발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라는 채권을 발행했어요. 이는 '독립된 나라를 세우면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서로, 주로 해외 동포들이 나라를 되찾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구입했답니다.

4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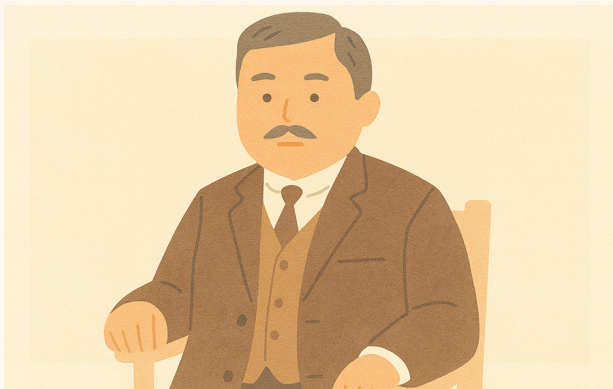
무궁화를 사랑한 교육자

남궁억

남궁억 선생은 학교에 무궁화 묘목을 심고 지도를 그려 나눠주며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가르쳤어요. 그는 “무궁화 동산 가꾸기는 민족정신을 기르는 일”이라며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4월

6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큰 부와 명예를 쌓았지만, 전 재산을 바쳐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어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도운 인물로도 유명하며, 연해주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4월

7



최초의 한글 신문

독립신문 창간

1896년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자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발간되었어요. 쉬운 한글로 국내외 소식을 전하고 민주주의 사상을 소개하며 백성들을 계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8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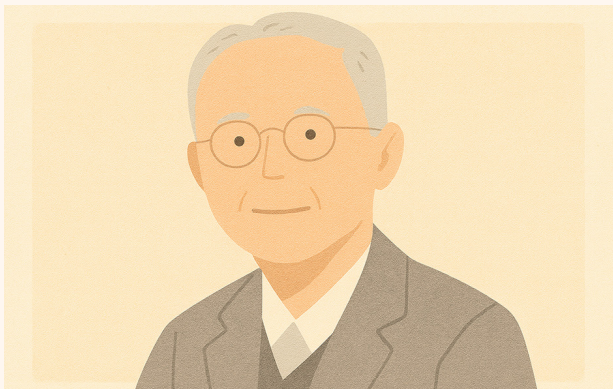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한글로 알리다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어려운 한문이 아닌 쉬운 한글로 쓰여져 누구나 나라 안팎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목소리 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4월

9



독립신문을 만든 선구자

서재필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귀국했어요. 그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하는 등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4월

10



민주주의의 첫걸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919년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처음으로 열렸어요.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헌법을 만들고,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을 선출했습니다.

4월

11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1919년 오늘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비록 중국에 있었지만, 27년간 우리 민족을 대표하여 독립운동을 이끈 자랑스러운 정부이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4월

12



독립운동가의 헌신이 깃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를 이끈 지도자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동녕, 김구, 이승만, 박은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헌신으로 운영되었어요.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 외교, 군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4월

13



만주 독립운동의 통합을 이끌다.

일송 김동삼

일송 김동삼 선생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키우는 데 힘썼어요. 그는 흩어져 있던 독립군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1937년 오늘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순국하셨습니다.

4월

14



미주 동포들의 독립 선언

제1차 한인회의 개최

1919년 오늘부터 3일간,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의 주도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회의'가 열렸어요. 미주 각지의 동포 대표들이 모여 3·1운동을 지지하고,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4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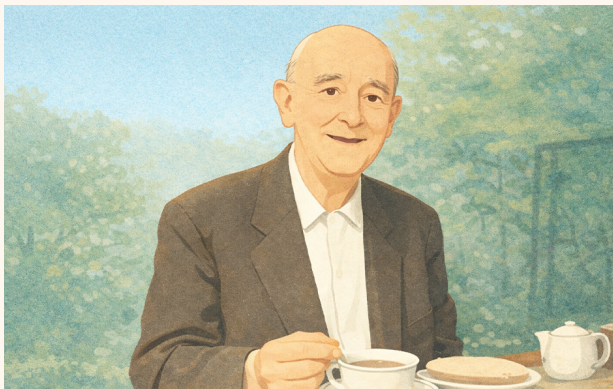
일제의 잔혹한 보복

제암리 학살사건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1919년 오늘 일본군은 경기도 화성 제암리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 무참히 학살했어요. 일제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4월

16



푸른 눈의 목격자

프랭크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

영국 태생의 캐나다의 장로교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프랭크 스코필드는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는 현장을 직접 찾아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고마운 은인입니다.

4월

17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성재 이시영

성재 이시영 선생은 다섯 형제와 함께 모든 재산을 바쳐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내며 나라의 기틀을 다졌으며, 1953년 오늘 서거하셨습니다.

4월

18



4·19 혁명의 기폭제

4·18 고려대 학생 피습 사건

1960년 오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평화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에게 습격당했어요. 이 사건은 다음 날 4·19 혁명의 일어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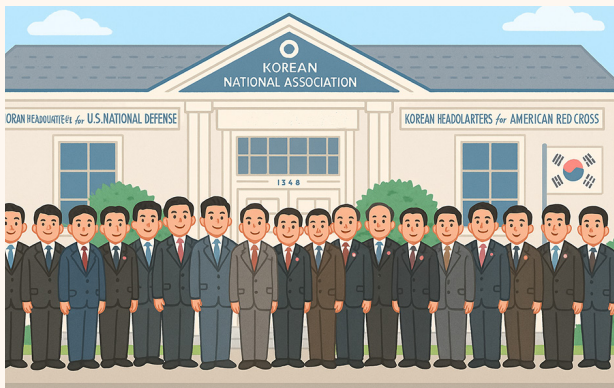
“부정선거 다시 하라!”

4·19 혁명 기념일

1960년 학생과 시민들은 3·15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어요. 4·19 혁명은 국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위대한 시민 혁명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월

20



미주 동포들의 통합 독립운동 단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1년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인국민회 등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했어요. 이 단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외교, 군사 활동을 펼치며 독립운동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4월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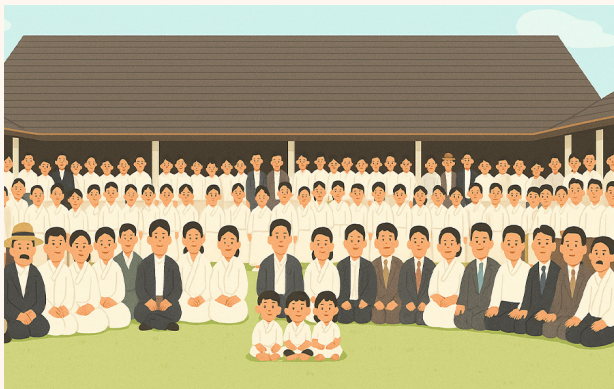
미국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소리를 전하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활동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 활동을 펼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요. 군자금을 모아 광복군을 지원하고, 한인 국방경위대를 조직해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4월

22



하와이에서 독립군을 키우다

대조선국민군단

미국 하와이에서도 독립을 위한 노력이 활발했어요. 특히 박용만 선생은 '무장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믿고 군사 훈련 단체인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했답니다. 뜻을 모은 청년들은 낮에는 농장 일을, 밤에는 훈련을 받으며, 언젠가 조국을 위해 싸울 날을 준비했습니다.

4월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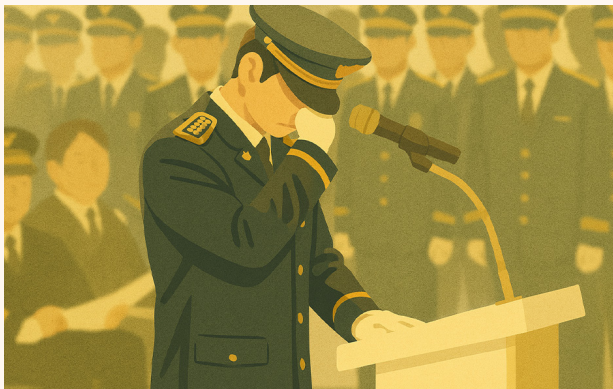
여성들의 비밀 독립운동 단체

송죽회

송죽회는 1913년 평양 송의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조직한 비밀결사예요. “죽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푸른 소나무처럼 변치 말자”고 맹세하며 독립 자금을 모으는 등 여성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4월

24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며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요일인 오늘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날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다 희생된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4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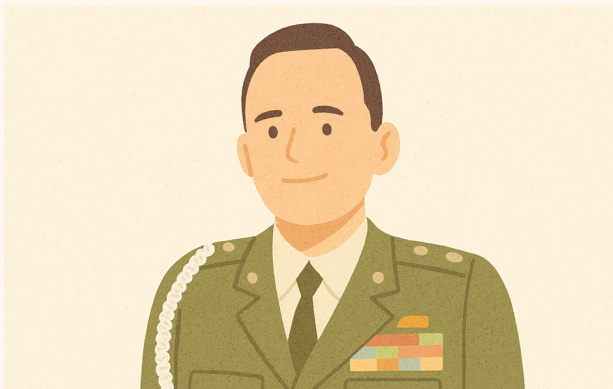
일상에서 국민 생명을 지킨 제복군무자

순직(殉職)

우리 주변의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제복을 입은 분들 중에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를 '순직'이라고 해요. 그분들의 희생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4월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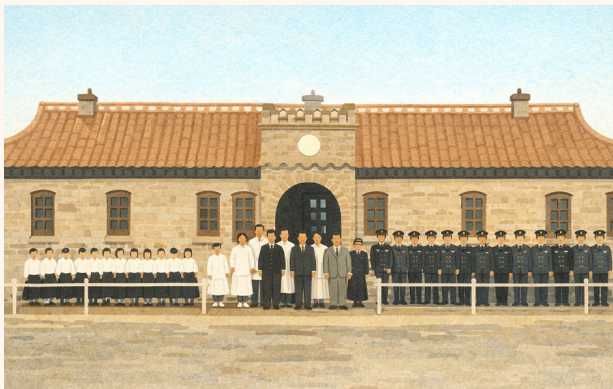
6·25 전쟁의 살아있는 전설

랄프 퍼켓 주니어

랄프 퍼켓 주니어 대령은 6·25 전쟁 당시 '205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에요. 우리 정부는 그의 용기와 헌신을 기려 외국군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4월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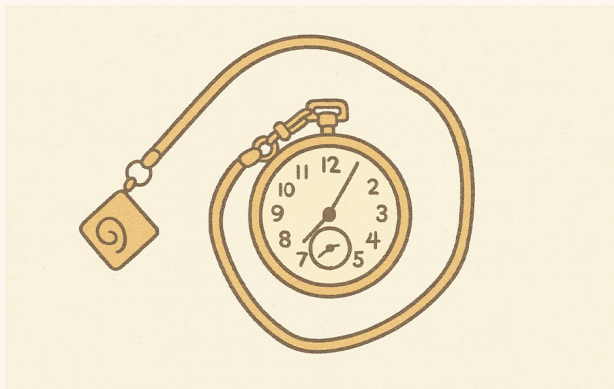
북간도 독립운동의 요람

명동학교 설립

1908년, 김약연 선생 등 민족 지도자들은 만주 북간도에 민족 교육을 위한 ‘명동서숙’(훗날 명동학교)을 세웠어요. 이곳은 일제의 교육 정책에 맞서 우리 역사와 한글을 가르쳤으며, 윤동주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독립운동의 중요한 요람입니다.

4월

28



의거를 앞두고 시계를 바꾸다

윤봉길의 시계

윤봉길 의사는 의거 당일 아침, 자신의 새 시계를 백범 김구 선생의 낡은 시계와 맞바꾸었어요. “제 시계는 이제 한 시간 밖에 쓸모가 없습니다”라는 그의 말에는 조국을 위한 비장한 각오가 담겨있었습니다.

4월

29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올린 독립의 함성

윤봉길 의거

1932년 오늘, 윤봉길 의사는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의 전승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졌어요. 이 의거는 침체되었던 임시정부에 큰 활력을 주었고, 중국 정부가 우리 독립운동을 돕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

30



4월의 보훈, O/X 퀴즈로 복습해요!

1.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 신문이다.

(O/X)

2. 4·19 혁명은 대학생들만 참여한 시위였다.

(O/X)

3. 윤봉길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이 없다.

(O/X)

(문항 순서는 임의이며, 정답은 O, X 순으로 표시합니다. / 1. (O) 2. (X) 3. (O)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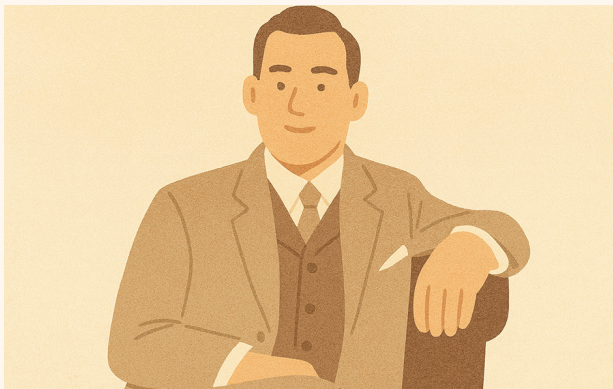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방정환

(독립운동가, 1899년 11월 9일 ~ 1931년 7월 23일)

5월

1



신문으로 일제에 맞선 푸른 눈의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한국명: 배설)

영국인 기자 어니스트 베델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일제의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북돋운 고마운 분이에요. 일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 민족의 편에 섰으며, 1909년 오늘 서거하여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2

5월



가장 강력했던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

어니스트 베델과 양기탁 선생이 함께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 가장 강력한 항일 신문이었어요. 영국인 베델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검열을 피할 수 있었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이끄는 등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용감하게 대변했답니다.

5월

3



독립군 양성의 요람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는 우당 이회영 선생과 형제들이 전 재산을 바쳐 만주에 세운 독립군 양성 기관이에요. 이곳에서 훈련 받은 수천 명의 졸업생들은 훗날 청산리, 봉오동 전투 등에서 독립군의 핵심 간부로 활약했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우리 무장 독립투쟁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5월

4



청산리 전투의 숨은 영웅

나중소

나중소 선생은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숨은 영웅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뒤에도 신민부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중국 길림성에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셨어요.

5월

5



어린이날에 깃든 독립의 희망

어린이날

일제강점기, 어린이날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지혜롭게 자라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려 했던 독립운동이었답니다.

5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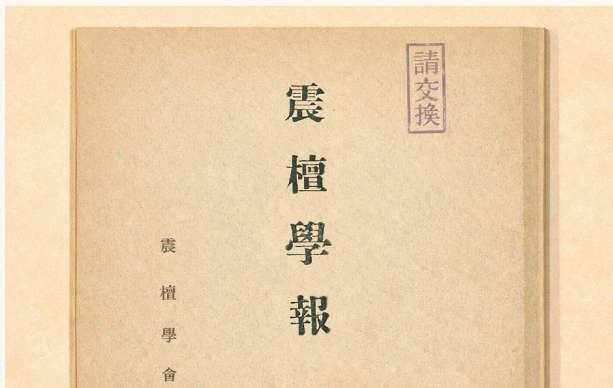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방정환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잡지 <어린이>를 펴냈으며, 동화를 들려주는 등 평생을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는 모든 어린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외쳤던,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5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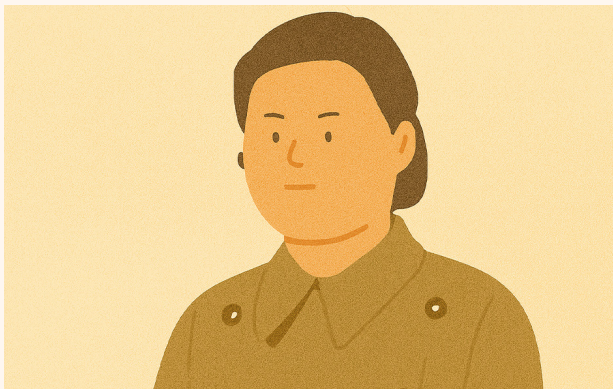
역사로 민족의 혼을 지킨 모임

진단학회

1934년,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진단학회'를 창립했어요. 이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깎아내리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서, 과학적인 연구로 올바른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니다. 진단학회는 「진단학보」라는 학술지를 펴내고 연구 활동을 하며, 붓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5월

8



여성 무장투쟁의 별

박차정

박차정 의사는 여성 독립운동 단체 근우회에서 활동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을 맡아 무장투쟁에 참여했어요. 그는 “나라의 독립은 남녀의 구별이 없다”고 외친 용감한 투사였습니다.

5월

9



우리 동네의 작은 현충원

현충탑 이야기

국립현충원 외에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나 군에는 그 지역 출신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탑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동네 현충탑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그곳에 잠든 우리 고장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도 보훈 활동입니다.

5월

10



미주 한인사회의 총결집

대한인국민회 창립

1910년 오늘, 미국에 있던 여러 한인 단체가 힘을 합쳐 ‘대한인국민회’를 창립했어요.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 단체로서, 독립 자금을 모으고 외교 활동을 펼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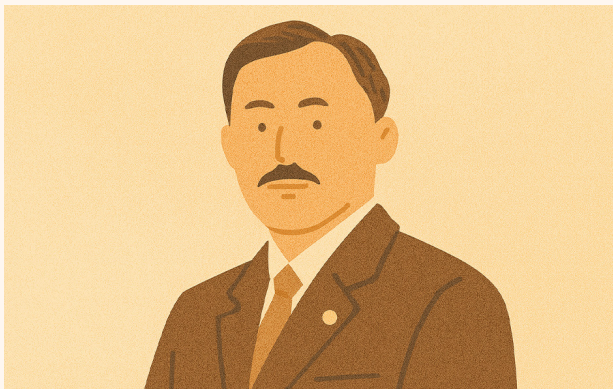
“반봉건, 반외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오늘은 낡은 제도를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1894년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이 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월

12



대한인국민회의 중심

도산 안창호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 창립의 중심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었어요. 그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동포들의 단결과 실력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5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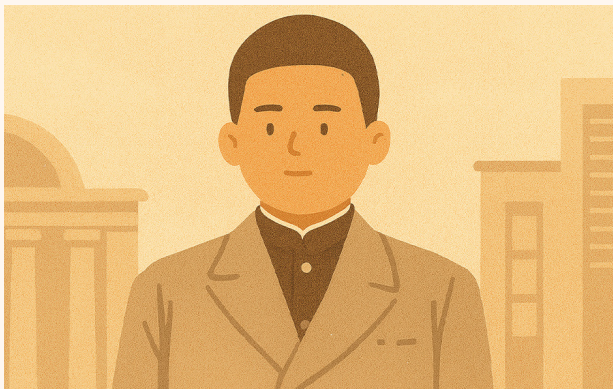
독립운동 인재 양성의 요람

흥사단 창립

1913년 오늘,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했어요. 흥사단은 인격 수양과 단결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길러 독립을 준비하려 했던 인재 양성 단체입니다.

5월

14



대만에서 울린 독립의 총성

조명하

1928년 오늘, 조명하 의사는 대만에서 일본 육군대장 구니노미야를 독 묻은 칼로 공격하는 과정,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그의 용감한 의거는 침체되었던 독립운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5월

15



“죽음의 이 순간을 오래 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조명하 의사 마지막 유언

조명하 의사는 사형 집행 전 “나는 삼한의 원수를 갚았노라.
아무 할 말은 없다. 죽음의 이 순간을 오래 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다만 조국의 광복을 못 본채 죽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라는 당당한 유언을 남겼어요.

5월

16



서울대공원에서 만나는 독립 영웅

조명하 의사 동상

과천 서울대공원에는 조명하 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원 입구에 동상을 세운 것은, 그의 용기와 나라 사랑 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본받자는 의미랍니다.

5월

17



5·18 민주화 운동 이야기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희생하고 저항했기에 가능했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노력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5월

18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함성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시민들이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 일을 기억하고 이어 가기 위해 1997년에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5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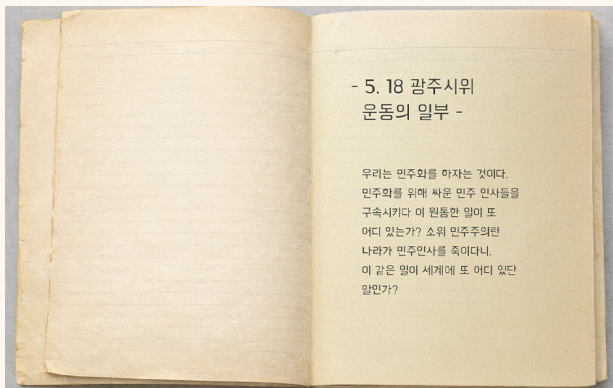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광주 옛 전남도청

광주 옛 전남도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최후의 보루였어요. 이곳은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열망과 아픔이 서려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5월

20



역사적 가치를 인정 받은 민주화운동의 기록물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작성한 성명서, 일기, 사진 등 방대한 기록물들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이는 5·18이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5월

21



독립운동가 부부를 기억하다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을 맞아,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한 부부들을 기억해요.
임시정부의 김규식-김순애 의열단의 박열-가네코 후미코
부부 등 수많은 부부가 독립을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5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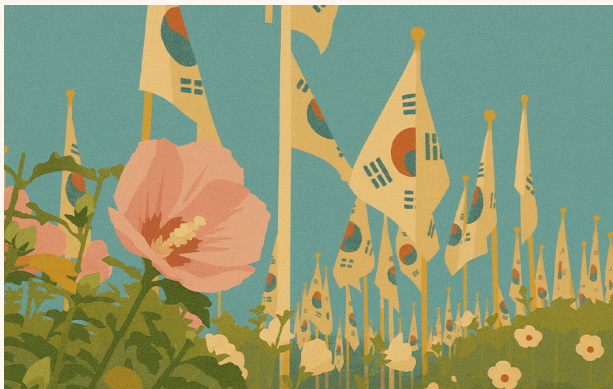
임시정부의 살림꾼이자 여성운동 선구자

김순애

김순애 여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선생의 아내이자, 자신도 불꽃같은 삶을 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녀는 임시정부의 재정을 살뜰히 돌보는 한편,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여성의 독립운동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5월

23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순국선열(殉國先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먼저 가신 열사라는 뜻이에요.
주로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5월

24



입헌군주제를 꿈꾼, 애국계몽운동 단체

헌정연구회

1905년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헌정 연구 단체 ‘헌정연구회’가 창립되었어요. 이 단체는 이준, 양한묵 선생 등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정치와 법의 중요성을 알려 나라의 힘을 키우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5월

25



통일된 조국을 꿈꾼 지도자

몽양 여운형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직후까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민족 지도자예요.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랍니다.

5월

26



옥중 순국한 민족대표

양한묵

양한묵 선생은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등 애국계몽운동 단체를 이끌었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어요. 그는 만세운동 직후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19년 오늘,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셨습니다.

5월

27



여성도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여성 독립운동

일제강점 시기 동안, 국내외에서는 여성 계몽과 독립운동 참여를 목표로 하는 여성 단체들이 조직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여성 교육과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독립 자금을 모으고 비밀 연락 임무를 수행하며 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5월

28



국경을 넘은 인류애

6·25 전쟁 구호 활동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속에서, 전 세계 우방국과 민간단체들이 보내온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분유와 의약품, 옷가지 등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던 피란민과 전쟁고아들에게 생명의 동아줄이었습니다.

5월

29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영웅

해외파병용사의 날

오늘은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PKO) 등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 해외 파병 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이에요.

5월

30



해외로 뺏어나간 국군 용사

해외파병의 역사

우리나라는 1964년 베트남 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 군인을 보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도왔어요. 국군은 전쟁이 끝난 뒤 마을을 다시 세우고, 사람을 치료하며, 재난을 돕는 일로 세계 평화에 힘을 보탰어요.

5월

31



5월의 보훈, O/X 퀴즈로 복습해요!

1. 대한민국민회는 중국 상하이에서 창립되었다.

(O/X)

2.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 일어났다.

(O/X)

3. 동학농민혁명은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혁명이다.

(O/X)

6월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평소의 뜻한 바를 관철하도록
분투하여야 하며 숨이 멎는 그날까지
한민족의 독립을 절규해야 한다.”

홍범도

(독립운동가, 1868년 음력 8월 27일 ~ 1943년 10월 25일)

1

6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스스로 일어선 영웅들

의병의 날

오늘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 싸운 평범한 백성들, '의병'을 기리는 날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6월

2



태백산 호랑이 의병장

신돌석 장군

신돌석 장군은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태백산 호랑이'라 불리며 일본군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그는 신분과 상관 없이 누구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준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6월

3



나라 사랑 정신

호국보훈의 달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한 달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본받기로 다짐해 봅시다.

6월

4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의미

목숨을 바친 위대한 영웅들

순국선열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독립운동을 말하고, 호국영령은 6·25 전쟁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과 싸우다 돌아가신 군인을 비롯한 분들을 의미해요.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위대한 영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6월

5



현충일 바로 알기

태극기 게양

내일 현충일에는 조의를 표하는 ‘조기’를 달아야 해요.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겁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올바르게 태극기를 게양해 보아요.

6월

6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현충일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치신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이죠.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월

7



독립군이 거둔 빛나는 첫 승리

봉오동 전투

1920년 오늘,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은 만주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어요. 이는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대규모 승리로,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6월

8



봉오동 전투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홍범도 장군은 평범한 사냥꾼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사격
술과 지략으로 일본군을 무찌른 전설적인 독립군 지도자예요.
그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6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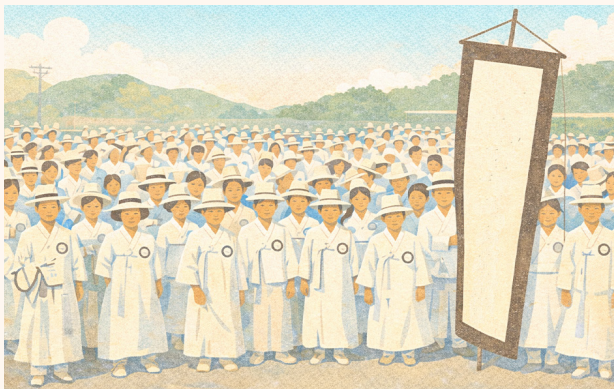
“뭉치면 이긴다!”

봉오동 전투의 연합 독립군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뿐만 아니라, 최진동, 안무 선생 등이 이끈 여러 독립군 부대가 힘을 합쳐 싸운 연합 작전이었어요. 서로 다른 부대였지만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기에, 훨씬 더 강한 일본군을 상대로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답니다.

6월

10



학생들의 외침이 다시 울려 퍼지다

6·10 만세운동

1926년 오늘, 순종의 장례일을 기회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제2의 3·1운동인 '6·10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운동은 침체되었던 민족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월

11



불굴의 나라 사랑 정신

6·10 만세운동을 이끈 학생들

6·10 만세운동은 일제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학생들이 비밀리에 격문을 만들어 뿌리며 용감하게 주도했어요. 어린 학생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나라 사랑 정신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6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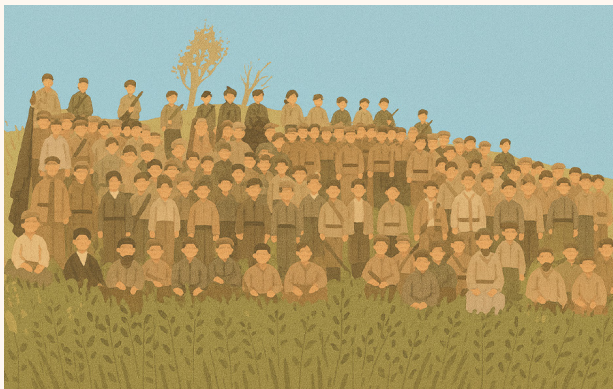
민족 운동의 힘

6·10 만세운동이 남긴 의미

6·10 만세운동은 학생 운동이 민족 운동의 중요한 힘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이 운동을 계기로 나뉘어 있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 신간회를 만드는 바탕이 되었답니다.

6월

13



독립전쟁의 주역들

독립군 부대

독립군은 하나의 부대가 아니었어요.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등 여러 독립군 부대가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각자의 전략으로 힘을 합쳐 일본군에 맞서 싸웠답니다.

6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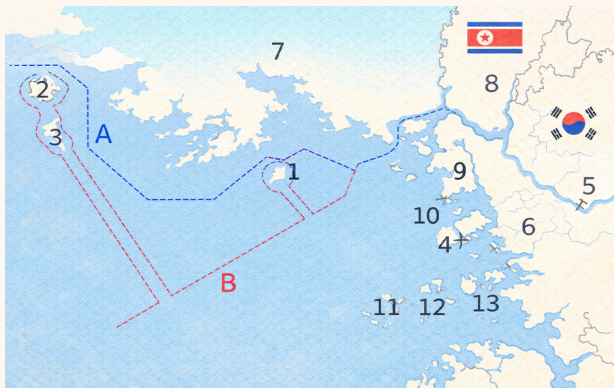
세계 곳곳에 남겨진 우리의 발자취

해외 독립유적지

우리 독립운동의 흔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어요.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 미국 LA의 대한민국 민회 기념관 등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유적지들은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6월

15



서해 NLL을 사수하다

제1연평해전

1999년 오늘,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우리 해군 고속정에 기습 공격을 가해왔어요. 우리 해군은 용감히 맞서 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우리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6월

16



우리 바다를 지키는 생명선

NLL

NLL은 6·25 전쟁 직후, 서해 바다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된 해상 경계선이에요. 우리 해군은 이 NLL을 기준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고,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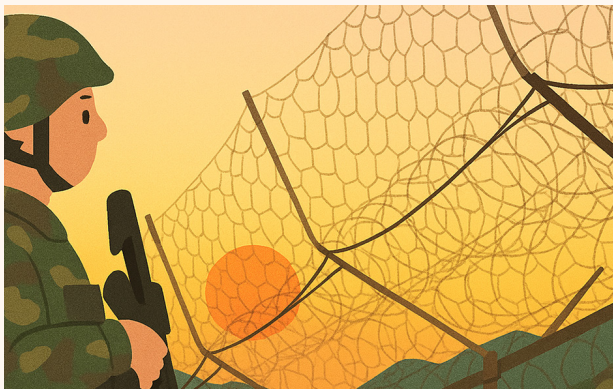
제1연평해전의 영웅

안지영 대위

당시 참수리 325호정의 부정장이었던 안지영 대위는 교전 중 중상을 입은 정장을 대신하여 끝까지 전투를 지휘했어요. 그의 침착하고 용기 있는 지휘 덕분에 우리 해군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6월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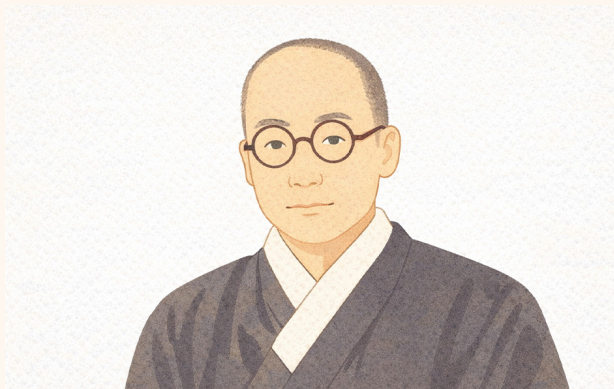
나라 경계 지킴이

최전방 수호병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들은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최전방에서 철통같은 경계 근무를 서며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춥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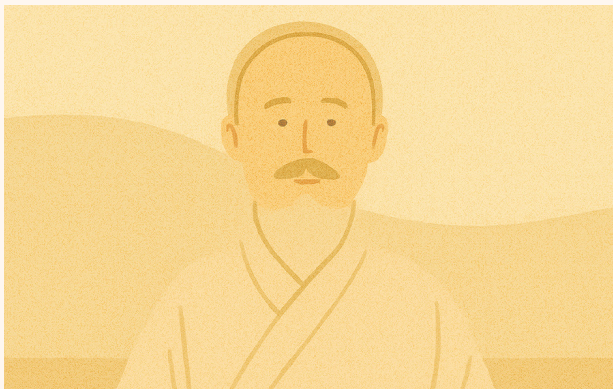
‘광복절 노래’를 지은 민족사학자

위당 정인보

위당 정인보 선생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얼’(정신)을 지키기 위해 한국학을 연구한 위대한 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예요. 우리가 3·1절과 광복절에 부르는 기념 노래의 가사를 직접 지었으며, 그의 글과 연구는 우리 민족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6월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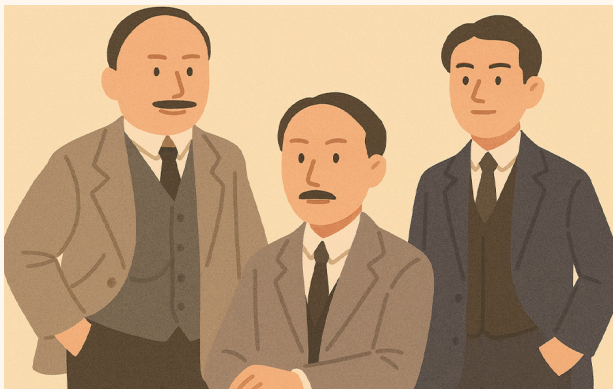
역사로 민족의 혼을 지킨 연구자

민족사학자

붓으로 우리 역사를 지키며 독립운동을 이끈 역사학자들이 있었어요. 박은식 선생은 '한국통사(아픈 역사)'를 써서 나라 잃은 슬픔을 잊지 말자고 외쳤고,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연구하여 자긍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독립운동의 중요한 정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6월

21



국권 회복을 위한 외침

헤이그 특사

1907년, 을사늑약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맺어진 것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준·이상설·이위종 선생은 특사의 자격으로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했어요. 비록 회의 참석은 좌절되었지만, 이들의 활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외교 투쟁이었습니다.

6월

22



헤이그 특사의 정사(正使)

보재 이상설

보재 이상설 선생은 헤이그 특사단의 대표로서 외교 활동을 이끌었어요. 그는 만주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에 힘썼고, 연해주에서 임시정부 성격의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는 등 평생을 국권 회복에 바쳤습니다.

6월

23



헤이그에서 순국한 열혈 검사

일성 이준

일성 이준 선생은 평리원 검사 출신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는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노력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지에서 순국하셨습니다.

6월

24



세계에 호소한 젊은 외교관

이위종

이위종 선생은 대한제국의 외교관이자, 경술국치 때 자결한 것으로 유명한 이범진의 아들로 7개 국어에 능통했던 유능한 외교관이었어요. 그는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기자협회에서 유창한 프랑스어 연설로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여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6월

25



잊지 말아야 할 한국전쟁

6·25 전쟁 발발

1950년 오늘 새벽,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큰 아픔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고향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6월

26



삶의 터전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

피란길 이야기

전쟁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과 집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야 했어요. 폭격과 굶주림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등 피란길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6월

27



책 대신 총을 든 어린 영웅들

학도병

전쟁이 나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교복을 입은 채 군대에 자원한 어린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학도병’이라고 부르죠. 앓된 얼굴로 책 대신 총을 들고 싸웠던 어린 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월

28



전쟁 초기 빛나는 승리

춘천지구 전투

1950년 6월 전쟁이 시작되자 국군은 춘천과 홍천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며칠 동안 힘껏 싸웠어요. 이 싸움 덕분에 북한군의 진격이 늦어졌고, 우리 군은 한강 남쪽을 지킬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6월

29



목숨으로 지켜낸 서해 NLL

제2연평해전

2002년 오늘,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 공격하여 치열한 해전이 벌어졌어요. 우리 해군 용사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 NLL을 지켜냈습니다.

6월

30



6월의 보훈, O/X 퀴즈로 복습해요!

1. 현충일은 6·25 전쟁 전사자만을 기리는 날이다.

(O/X)

2.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거둔 최초의 대규모 승리다.

(O/X)

3.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은 패배했다.

(O/X)

(문자 퀴즈는 6월 30일 'X' / (O) 'Z' / (공공 6월 6일 무늬 6월 6일 'X') '1' : 6월)

7월

“나는 나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네코 후미코

(독립운동가, 1903년 1월 25일 ~ 1926년 7월 23일)

7월

1



첫 전투를 승리한 영웅

백두산함의 마지막 항해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은 6·25 전쟁 첫날 밤, 대한해협 해전에서 적 수송선을 격침시켜 부산을 지켜낸 위대한 영웅이에요. 전쟁 내내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임무를 다한 백두산함은 1959년 오늘, 명예롭게 퇴역하여 역사 속으로 항해를 마쳤습니다.

7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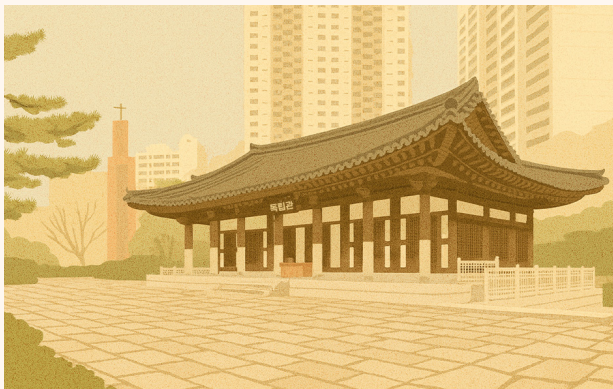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꿈꾸다

독립협회 결성

1896년 오늘, 서재필, 이상재 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독립 협회’를 결성했어요. 독립협회는 백성들에게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알려주고,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중요한 단체입니다.

7월

3



토론과 배움의 장소

독립관

독립협회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을 수리하여 ‘독립관’이라는 이름의 사무실 겸 집회 장소로 사용했어요. 사대주의의 상징이었던 건물이 백성들이 모여 토론하고 독립을 외치는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7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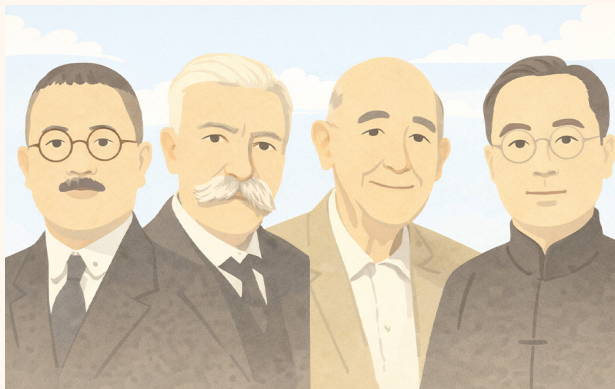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호머 헬버트

미국인 선교사이자 교육자인 호머 헬버트 박사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으로 불리는 고마운 분이예요. 그는 1886년 7월 5일, 근대 교육을 위해 조선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한글을 연구하고 일제의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평생을 한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7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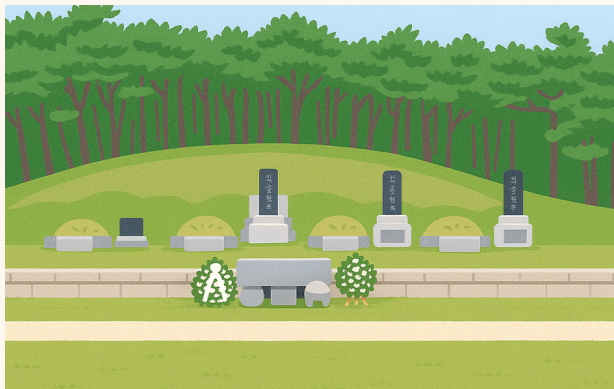
한국의 독립을 도운 푸른 눈의 친구들

외국인 독립운동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고마운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캐나다인 스코필드 박사는 제암리 학살 사건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렸고, 아일랜드인 조지 루이스 쇼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임시정부의 비밀 활동을 도왔습니다.

7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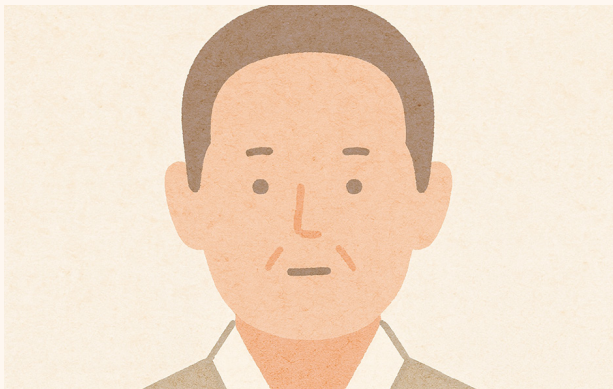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세 영웅

삼(3) 의사 국민장(國民葬)

1946년 오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의사의 유해를 모시고 국민장이 거행되었어요. 세 분은 모두 일제에 항거하다 일본에서 순국하셨는데, 광복이 된 후에야 비로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눈물로 세 영웅의 귀환을 맞이했습니다.

7월

7



독립 자금을 모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

안명근

안명근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으로, 만주에 독립 운동 기지를 세우기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예요. 그의 계획은 '안악 사건'으로 발각되어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그는 10년이 넘는 옥고를 치르다 결국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7월

8



“나라를 구하는 데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윤희순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가 남긴 말로,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남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평등하고 강인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7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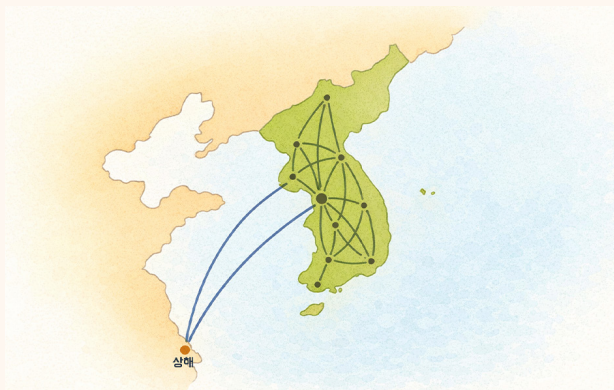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조성환

조성환 선생은 대한제국 군인 출신으로, 평생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바친 군인이자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군무총장(오늘날 국방부 장관)을 맡아 광복군 창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독립전쟁 준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7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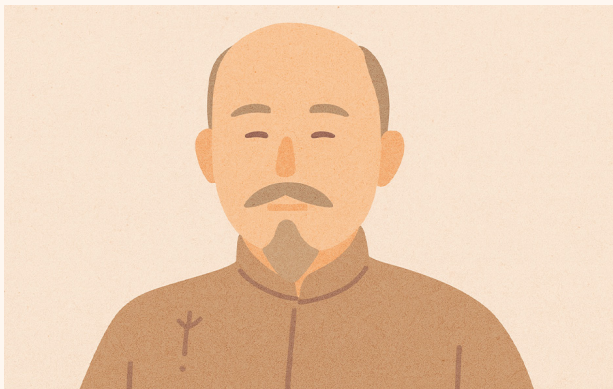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망

연통제 공포

1919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와 비밀리에 연락하고 독립운동을 지휘하기 위해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었어요. 마치 비밀 정부처럼, 전국 각지에 책임자를 두어 임시정부의 명령을 전달하고, 독립 자금을 모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월

11



“오로지 뭉치면 살고 길이 열릴 것이요,
흩어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니.”

이동녕

임시정부 주석 이동녕 선생의 말로, 독립을 이루는 길은
힘들고 멀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7월

12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상징

태극기 국기 채택

1948년 오늘, 대한민국 제헌 국회는 우리나라의 첫 헌법을 의결했어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상징이었던 ‘태극기’를 나라의 공식적인 깃발, 즉 국기로 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답니다. 이후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상징으로서 법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월

13



황무지 개간 요구를 막아낸 단체

보안회 조직

1904년 오늘,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기 위해 ‘보안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었어요. 보안회는 집회를 열고 상소를 올리는 등 국민들의 힘을 모아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펼쳤고, 마침내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답니다.

7월

14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문자 보급 운동 시작

1920~1930년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구호 아래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문자 보급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어요. 일제에 맞서 우리 민족의 힘을 키우려 했던 중요한 민족 운동이었답니다.

7월

15



무장투쟁을 이끈 비밀결사

대한광복회 결성

1915년 오늘,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대한광복회'가 결성 되었어요. 대한광복회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아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우는 등, 공화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발한 무장투쟁을 펼쳤습니다.

7월

16



만세를 이끈 기생

김향화

김향화 선생은 수원에서 기생들의 조합을 이끌며, 3·1운동 당시 동료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한 용감한 여성 독립운동가예요. 그녀는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직접 태극기를 나눠주고 행진에 앞장섰습니다.

7월

17



대한민국 헌법 공포

제헌절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져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이에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한 나라의 최고 법입니다.

7월

18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요. 이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나 특정 개인이 아닌, 바로
‘국민’임을 선언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7월

19



외교와 조직으로 싸운 독립운동가

몽양 여운형

몽양 여운형 선생은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는 등 임시정부를 비롯해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였어요. 통일된 조국을 위해 애쓰다 1947년 오늘 안타깝게 서거하셨습니다.

7월

20



자주적 국가건설을 위한 조직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광복 직후,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혼란을 수습하고 자주적인 국가 건설을 준비했어요.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우려 했던 그의 노력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7월

21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방법

목념

‘목념’은 말없이 머리를 숙여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행동이에요. 현충일이나 각종 추모 행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목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아요.

7월

22



임신한 몸으로 싸운 여성 독립운동가

안경신

안경신 의사는 3·1운동에 참여한 뒤, 평안남도 도청에 폭탄을 던져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용감한 여성 독립운동가 예요. 이 의거를 실행할 당시 그녀는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7월

23



조선의 독립을 사랑한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인이었지만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와 함께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동지이자 연인이었어요. 두 사람은 일왕 암살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정에서도 당당하게 저항했으며, 그녀는 1926년 오늘 23세의 젊은 나이로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7월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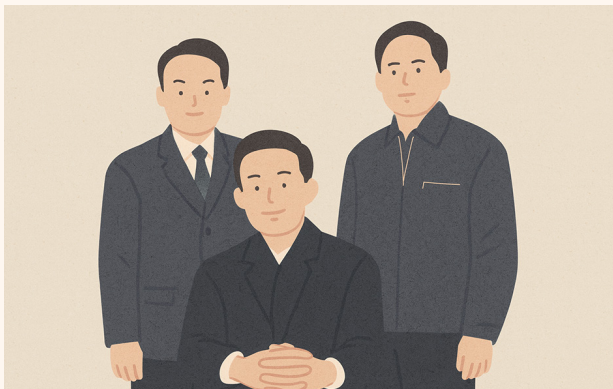
일제에 대한 마지막 경고

부민관 폭파 의거

1945년 오늘, 조문기, 유만수 등 대한애국청년단원들은 친일파들이 모여 전쟁을 찬양하는 대회장(부민관)에 폭탄을 던졌어요. 이 의거는 광복 직전, 우리 민족이 끝까지 일제에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준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7월

25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겠다.”

부민관 의거를 이끈 청년들

부민관 의거는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등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주도했어요. 그들은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로, 광복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7월

26



우리 독립을 다시 약속하다

포츠담 선언

1945년 오늘,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지도자들은 일본에게 전쟁을 끝내고 항복하라는 조건을 담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어요. 이 선언에는 이전의 카이로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7월

27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6·25 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1953년 오늘, 3년간의 6·25 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이 체결 되었어요. 또한, 이 날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7월

28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우리 독립운동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14년 오늘,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어요. 이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는 우리나라 3·1운동에 큰 영향을 주며 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7월

29



분단의 상징이자 평화의 문

판문점

판문점은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이자, 남과 북이 마주하고 있는 분단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한때는 군사적 긴장이 맴돌았지만, 지금은 남북 대화와 평화 논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7월

30



“우리 살림 우리 것으로!”

조선물산장려회 발기

1920년 오늘, 평양에서는 조만식 선생 등을 중심으로 ‘조선 물산장려회’가 만들어졌어요.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사서 쓰자”는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일제의 경제 침탈에 맞서려 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7월

31



7월의 보훈, O/X 퀴즈로 복습해요!

1. 독립협회는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O/X)

2. 6·25 전쟁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

(O/X)

3. 부민관 폭파 의거는 광복 이후에 일어났다.

(O/X)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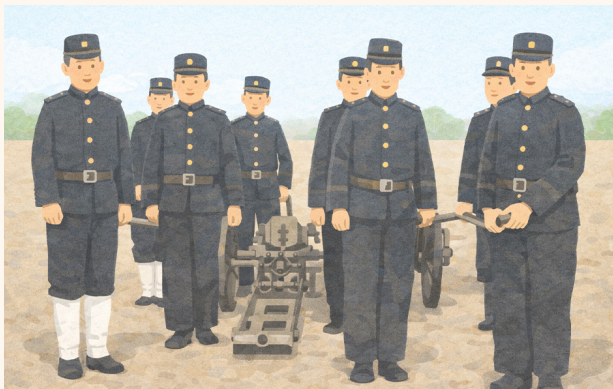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고 안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에 있다.”

남자현

(독립운동가, 1872년 12월 7일 ~ 1933년 8월 22일)

8월

1



나라의 방패를 빼앗다

대한제국군 강제 해산

1907년 오늘,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 시켰어요. 이에 분노한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이들은 훗날 의병 부대의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8월

2



군대 해산에 항거한 영웅

박승환

대한제국군의 강제 해산 당시,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참령은 군대 해산에 반대하며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어요. 그의 죽음은 우리 군인들이 봉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월

3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위대한 기업가

백산 안희제

백산 안희제 선생은 '백산상회'라는 무역회사를 세워, 사업으로 번 돈을 모두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한 위대한 기업가이자 독립운동가예요. 그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그는 1943년 오늘,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셨습니다.

8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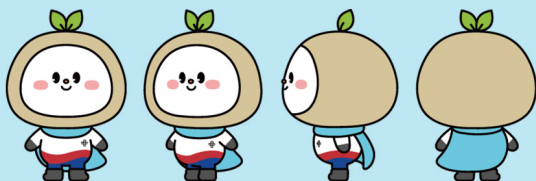
광복군에서 6·25 전쟁 영웅까지

장철부 서거

장철부 중령은 학병으로 끌려갔다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항일 투쟁을 벌였고, 광복 후에는 국군이 되어 6·25 전쟁에 참전했어요. 기병대대장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그는, 1950년 오늘 경북 청송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순국하셨습니다.

8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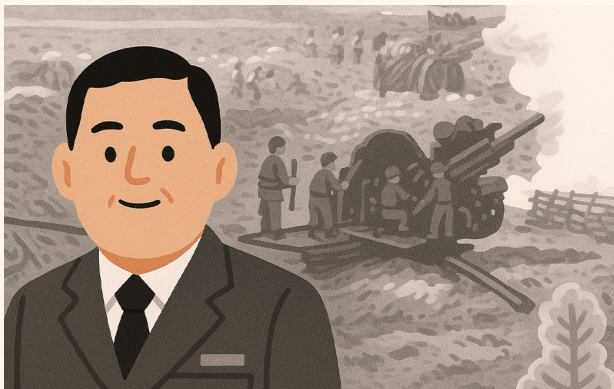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국가기관

국가보훈부 창설

1961년 오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기리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당시 군사원호청)가 처음 만들어
졌어요. 국가보훈부는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월

6



“영웅들의 숭고한 이야기를
널리 알립니다.”

국가보훈부 선양 활동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선양 활동’이에요. ‘이달의 독립운동가’, ‘6·25 전쟁영웅’을 선정하여 알리고, 독립기념관과 국립현충원 등을 관리하며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8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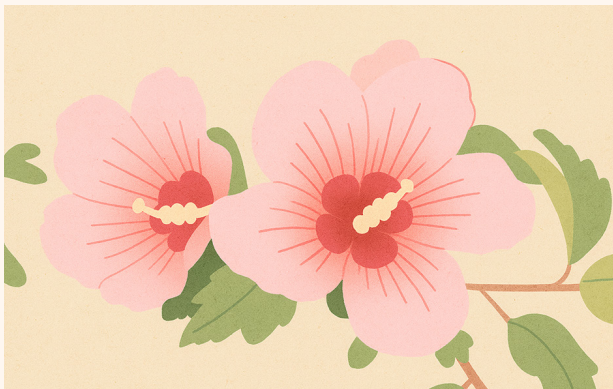
영웅과 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답

국가보훈부 지원 활동

국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며 감사의 마음에 보답해요. 국가보훈부는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아플 때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등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8월

8



피고 또 피어 지지 않는 꽃

무궁화

무궁화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다”는 뜻을 가졌어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정신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8월

9



민족의 아픔을 달랜 영화감독

춘사 나운규

춘사 나운규 선생은 일제강점기, 영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독립 의지를 일깨운 위대한 영화감독이자 배우예요. 그가 만들고 주연한 영화 <아리랑>은 나라 잃은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며, 그는 1937년 오늘 서거하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8월

10



민족의 목소리를 빼앗다

조선일보·동아일보 강제 폐간

1940년 오늘, 일제는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강제로 폐간시켰어요. 이는 우리말과 글을 없애고 민족정신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대표적인 문화 탄압이었습니다.

8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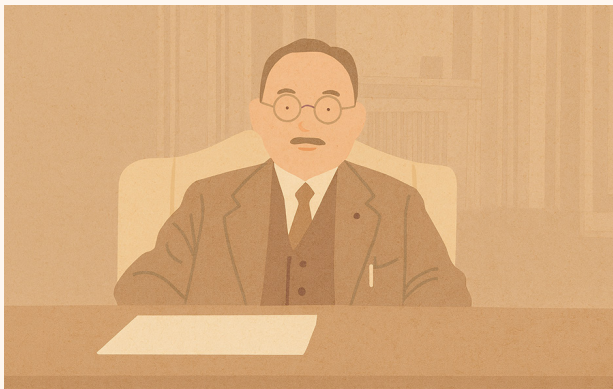
꺾이지 않는 언론인의 민족 정신

조선일보·동아일보 강제 폐간에 맞선 언론인들

신문이 강제로 폐간되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언론인들은 붓을 꺾지 않고 비밀리에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우리말과 역사를 지키는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노력 덕분에 민족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8월

12



언론으로 민족정신을 지킨 독립운동가

민세 안재홍

민세 안재홍 선생은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의 사장을 지내며, 날카로운 글로 민족의 정신을 지키려 했던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예요. 그는 신간회 운동을 이끌고 우리 역사 연구에 힘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일제의 신문 강제 폐간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다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

8월

13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워버린 신문사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

1936년,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우승 사진에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신문에 실었어요. 이는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용감한 행동이었지만, 이로 인해 신문사는 정간되고 관련자들은 옥고를 치렀답니다.

8월

14



“우리 손으로 조국을 해방시키겠다.”

독수리 작전

일제의 패망을 하루 앞둔 1945년 8월 14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한국광복군은 OSS(미 전략사무국)와 함께 국내 진공 작전 ‘독수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일본의 조기 항복으로 실행되지 못했지만, 이는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자주적인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8월

15



35년의 어둠을 걷어낸 빛

광복절

1945년 오늘,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았어요. 광복절은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일 뿐 아니라, 국권을 되찾고 우리 민족이 다시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8월

16



“대한독립만세!”

광복의 기쁨과 거리의 함성

일본 국왕의 항복 방송이 나간 후,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어요. 숨겨두었던 태극기가 온 세상을 뒤덮었고, 기쁨의 함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답니다.

8월

17



고국으로 돌아오는 험난한 길

귀국선 이야기

광복이 되자,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수많은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낡고 작은 배에 몸을 실었어요. 하지만 일부 배가 정원을 초과하거나 폭발 사고를 당하는 등의 비극이 일어나, 광복의 기쁨 뒤에 큰 슬픔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8월

18



임시정부의 마지막 보금자리

충청 임시정부청사

충청 임시정부청사는 일제의 공격을 피해 여러 곳을 떠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독립의 희망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8월

19



귀신 잡는 해병의 신화

통영상륙작전

1950년 8월 17일 시작된 통영상륙작전은 우리 해병대가 단독으로 감행하여 성공한 최초의 상륙작전이에요. 이 전투의 용맹함을 본 외국인 기자가 “귀신 잡는 해병(Ghost-Catching Marines)”이라고 보도하면서, 오늘날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별명이 탄생했답니다.

8월

20



나라의 어머니를 시해하다

을미사변

1895년 음력 8월 20일,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우리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8월

21



명성황후 시해 현장

경복궁 건청궁 옥호루

경복궁에는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가 생활하던 '건청궁'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을미사변 당시 일본 낭인들은 이곳까지 난입했으며, 그 안에 있는 '옥호루'라는 누각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8월

22



한국의 잔 다르크

남자현

남자현 의사는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일제 고위 관리 암살을 시도하고, 여성 계몽 운동에도 힘썼어요. 손가락을 잘라 '조선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쓰는 등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8월

23



연해주 동포들의 독립운동 단체

성명회 결성

1910년 오늘,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은 경술 국치에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성명회’를 조직했어요. 이들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외에서도 꺼지지 않는 독립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8월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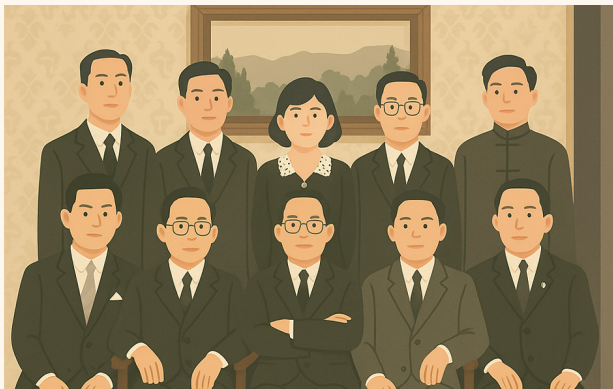
태극기에 담긴 용맹한 약속

독립운동가들의 철서

안중근, 남자현 의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태극기 위에 ‘대한독립’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이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숭고하고 비장한 약속이었습니다.

8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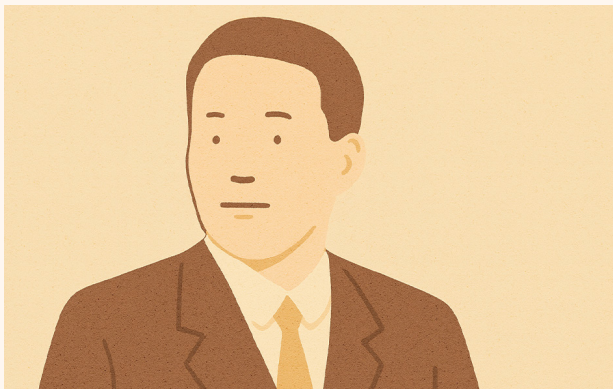
세계를 향한 임시정부의 창

구미위원부 설치

1919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외교 기관인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어요.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독립 자금을 모으는 등 임시정부의 중요한 외교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8월

26



하와이에서 독립군을 키운 독립운동가

우성 박용만

박용만 선생은 미국 하와이에서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하여,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청년들을 군인으로 키워낸 독립운동가예요. 그는 "군사력 없이는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믿으며, 무장 투쟁을 통한 조국 광복을 준비했습니다.

8월

27



하와이 이민의 역사와 독립운동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에 위치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떠났던 우리 동포들의 고된 삶과 독립운동을 기록한 곳이에요. 낯선 땅에서 땀 흘려 번 돈을 쪼개 독립 자금을 보냈던 그들의 나라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8월

28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담은 전시관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수많은 독립 운동 자료를 모아 전시하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거대한 '겨레의 탑'과 '불굴의 한국인상' 등을 통해,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8월

29



나라를 빼앗긴 슬픔

경술국치

1910년 오늘, 대한제국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했어요. ‘경술국치’는 우리 역사상 가장 슬프고 치욕스러운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이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8월

30

난리통에 머리 희어 백발이 되었건만,
몇 번이나 목숨을 버리려다
이루지 못했네.
오늘날 참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만이
하늘에 비치는구나.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자결한 선비

절명시

선비였던 매천 황현 선생은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슬픔과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가 남긴 '절명시'에는 나라 잃은 백성의 비통한 심정이 담겨 있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8월

31



8월의 보훈, O/X 퀴즈로 복습해요!

1. 광복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O/X)

2. 경술국치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날이다.

(O/X)

3.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기관이다.

(O/X)

9월

“단두대상에 홀로 서니
춘풍이 감도는구나.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리오”

강우규

(독립운동가, 1855년 7월 14일 ~ 1920년 11월 29일)

9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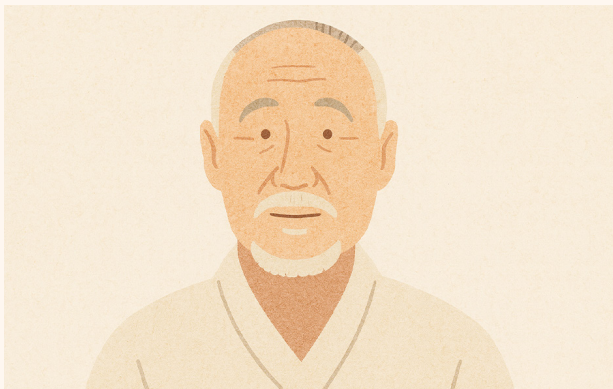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우리 독립운동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39년 오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어요. 이 전쟁은 우리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9월

2



백발의 노인 투사

강우규

1919년 오늘, 65세의 노인이었던 강우규 의사는 새로 부임하는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향해 폭탄을 던졌어요. 비록 총독을 처단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의거는 3·1운동 이후에도 식지 않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9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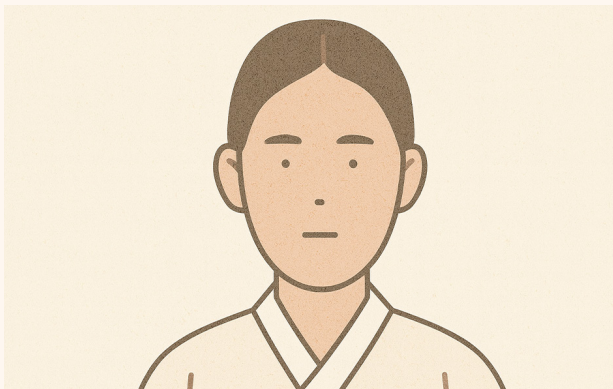
6·25 전쟁의 참상을 알린 종군기자

마거릿 히긴스

미국인 기자 마거릿 히긴스는 6·25 전쟁 발발 직후 한국으로 건너와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여성 종군기자예요. 그는 인천상륙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등 최전선을 누비며 생생한 기사를 썼고, 이 공로로 여성 최초로 풀리처상을 받았습니다.

9월

4



불꽃처럼 살다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애라

이애라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하고, 여성 비밀결사 ‘애국 부인회’를 이끌며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지원한 여성 독립운동가예요. 그녀는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갓난아기를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1921년 오늘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국하셨습니다.

5

9월



노동자들의 독립을 향한 외침

일제강점기 노동운동

일제강점기, 공장이나 부두에서 일하던 우리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민족 차별에 맞서 파업을 일으키며 저항했어요. 이는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넘어, 일제의 경제 수탈에 맞서 싸운 치열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6

9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열정

전쟁 중 교육열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임시로 세운 천막 교실에서 촛불을 밝히고 공부하며, 교육을 통해 가난과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9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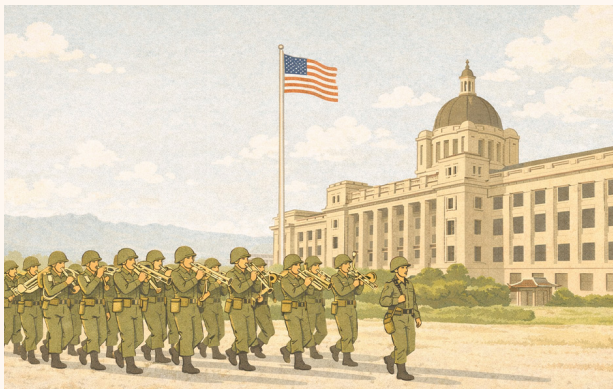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전사자 유해발굴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여러 고지에서는 지금도 매년 유해발굴이 진행됩니다.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이 땅의 산하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찾아내고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9월

8



미군, 남한 진주와 군정의 시작

미군정

1945년 오늘,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군이 남한에 들어오면서 3년간의 미군정이 시작되었어요. 이는 광복 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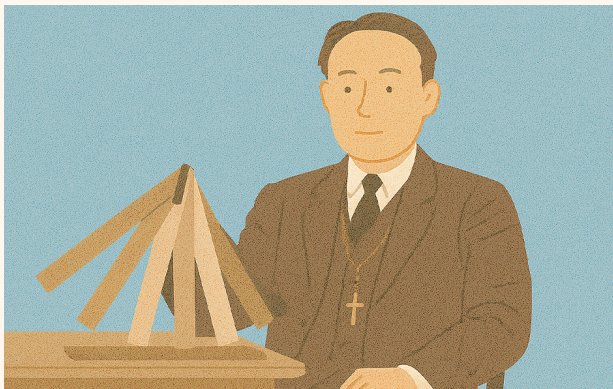
36년 식민통치의 끝

조선총독부 항복 조인식

1945년 9월 9일,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공식적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했어요. 이로써 36년간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일제의 식민통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으며, 이는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뤄낸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9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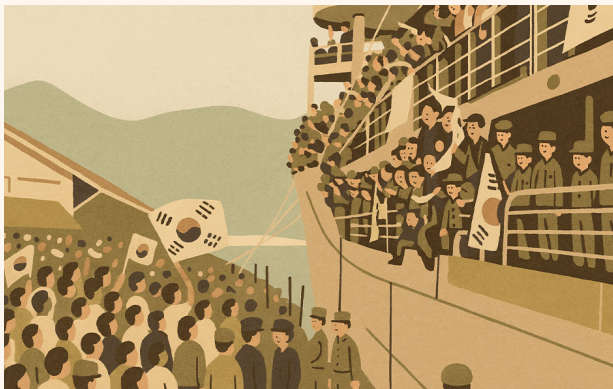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조소앙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삼균주의'를 만들었어요. 모든 개인이 정치, 경제, 교육적으로 균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사상은 임시정부 건국 강령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9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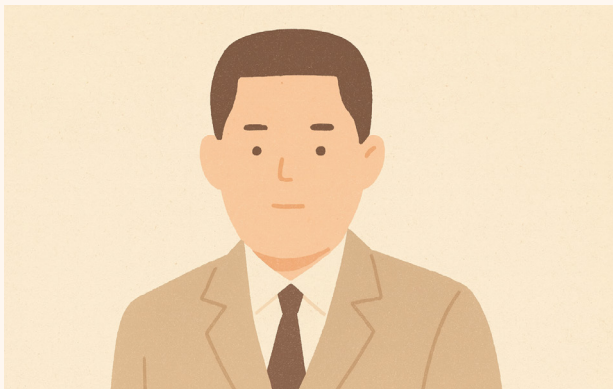
세계 평화를 위한 헌신

베트남전쟁 파병

1964년 오늘,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베트남전쟁에 비전투 부대를 파병했어요. 이후 전투부대까지 파병하며 우리나라 군인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낯선 땅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9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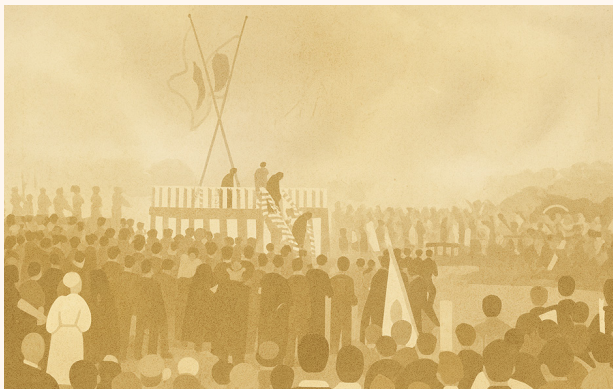
조선총독부를 폭파하라!

김익상

1921년 오늘, 의열단원 김익상 의사는 일제 식민 통치의 심장부인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어요. 그의 용감한 의거는 일제에게는 공포를, 우리 민족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9월

13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선택

의거(義舉)

‘의거’는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침략의 원흉이나 민족의 배신자를 처단하는 의로운 행동을 말해요.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용감한 외침이었습니다.

9월

14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박재혁

1920년 오늘, 의열단원 박재혁 의사는 부산경찰서 서장실에 폭탄을 던져 서장을 폭사시켰어요. 그는 체포된 후에도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일제를 꾸짖었으며, 옥중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다 순국했습니다.

9월

15



6·25 전쟁의 흐름을 바꾼 작전

인천상륙작전

1950년 오늘, 맥아더 장군이 이끈 유엔군과 국군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켰어요. 이 작전으로 북한군의 허리를 끊고, 6·25 전쟁의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9월

16



독립운동 탄압을 위한 조작

105인 사건

1911년 9월, 일제는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를 없애기 위해 ‘105인 사건’을 꾸며냈어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여 안창호, 이승훈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체포하고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9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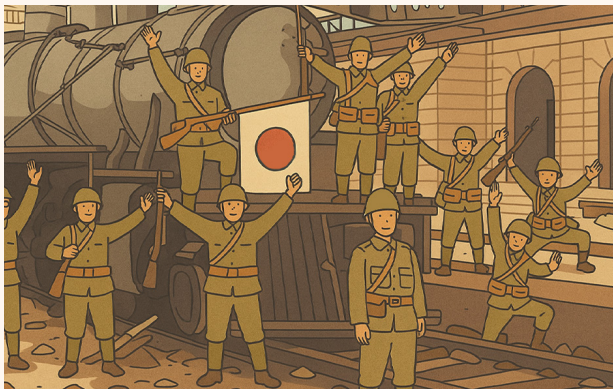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한국광복군 창설

1940년 오늘,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어요. 광복군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는 등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9월

18



일제의 대륙 침략 시작

만주사변

1931년 오늘, 일본 관동군은 남만주철도 선로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의 소행이라고 덮어씌우는 '만주사변'을 일으켰어요. 이를 빌미로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침략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9월

19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지청천 장군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이끌었어요. 그는 우리 독립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9월

20



만주사변 이후 항일무장투쟁의 확산

한중연합작전

만주사변 이후 우리 독립군 부대들은 중국군과 힘을 합쳐 '한중연합작전'을 펼치며 일본군에 맞서 싸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우리의 무장 투쟁은 더욱 거세 졌답니다.

9월

21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해요.”

세계 평화의 날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이에요. 6·25 전쟁의 아픔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는 더욱 소중한 가치죠.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봅시다.

9월

22



친일과 청산을 위한 노력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1948년 오늘, 광복된 조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 되었어요. 비록 여러 방해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역사를 바로 세우려 한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9월

23



13도 창의군 총대장 의병장

이인영

충남 이인영 선생은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추대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지휘했던 위대한 의병장이에요. 그는 부친상 중에도 “나라에 불충하면 어버이께 불효”라며 의병을 이끌었으며, 그의 투쟁은 우리 의병 항쟁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9월

24



책 속에 숨긴 독립의 꿈

학생 독서회

일제의 감시가 심했던 시절, 학생들은 '독서회'라는 이름으로 비밀 모임을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에 대한 책을 몰래 읽고 토론하며 독립운동을 계획했던 용감한 비밀결사였답니다.

9월

25



임시정부의 큰어른

신규식

신규식 선생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신해혁명에 참여하는 등, 한·중 연대를 통한 독립운동에 힘쓴 외교가예요. 그는 동제사를 조직하고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했으며, 임시정부 수립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9월

26



“우리 손으로 대학을!”

조선교육회 민립대학 설립

1922년 오늘, 조선교육회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직접 대학을 세우자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결의했어요. 이는 “배워야 산다”는 신념 아래,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맞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려 했던 중요한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9월

27



독립운동가들의 아픔이 서린 역사 현장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형무소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에요. 현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운영되어, 독립을 향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난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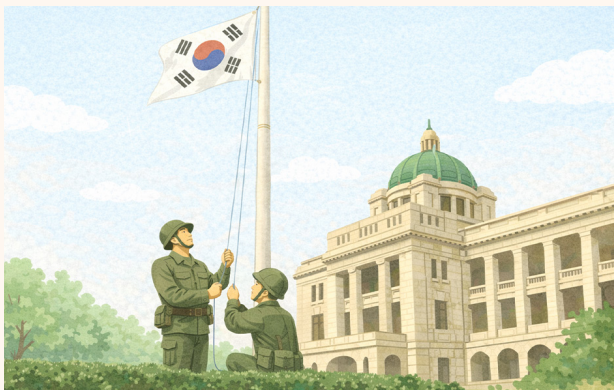
다시 찾은 수도 서울!

서울 수복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1950년 오늘, 6·25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되찾았어요. 이는 전쟁으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9월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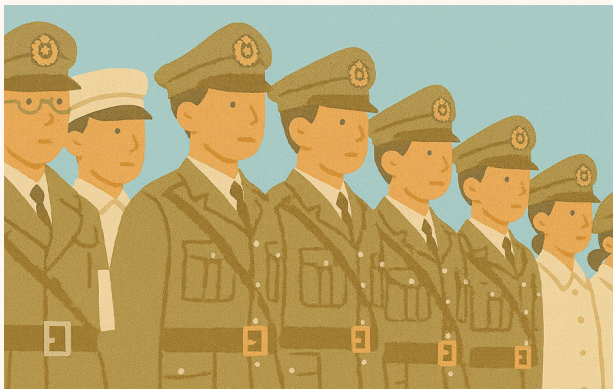


중양청에 다시 태극기를 게양하다

중양청 태극기 게양

서울 수복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는 치열한 전투 끝에 중양청 (옛 조선총독부 건물) 건물 꼭대기에 다시 태극기를 게양했어요. 이는 빼앗겼던 수도를 되찾았음을 알리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0



1. 강우규 의사는 청년 시절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다.

(0/x)

2.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중요한 작전이었다.

(O/X)

3. 한국광복군은 일본군과 함께 싸웠다.

(O/X)

10월

일심상조불언중 (一心相照不言中)

“하나의 마음은 말없는 중에도
서로를 비춘다.”

이상재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국장, 1850년 10월 26일 ~ 1927년 3월 29일)

10월

1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국군의 날

오늘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든든한 우리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국군의 날이에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병들이 있기에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10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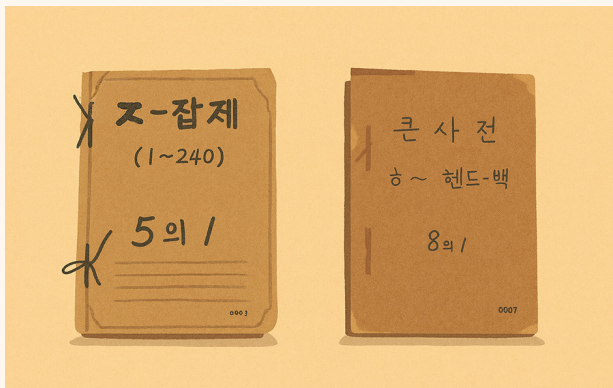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싸움

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 10월, 일제는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모진 고문을 가했어요. 우리말 사전을 만들던 학자들을 독립운동가로 몰아 탄압한 대표적인 민족 말살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10월

3



말과 마음을 모은 우리말 큰사전

조선어학회를 이끈 한글학자들

이극로, 최현배 선생 등 조선어학회 학자들은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말을 모아 <우리말 큰사전>의 원고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0월

4



기적적으로 되찾은 우리말 사전 원고

세상 밖에 나온 우리말 큰사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전 편찬은 중단되고, 원고는 모두 빼앗겼어요. 하지만 광복 후, 서울역 창고에서 기적적으로 원고가 발견되어 마침내 <우리말 큰사전>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답니다.

10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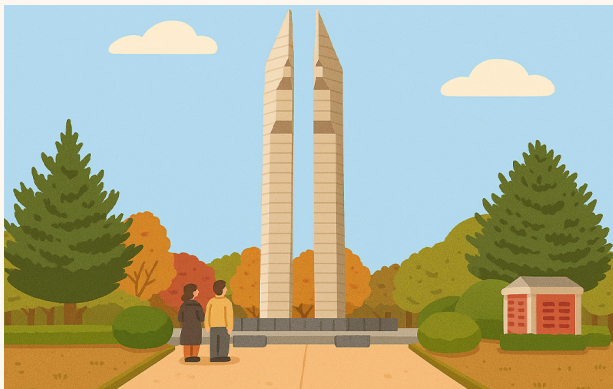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며

제대군인주간

매년 10월 둘째 주는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제대군인'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제대군인주간'이에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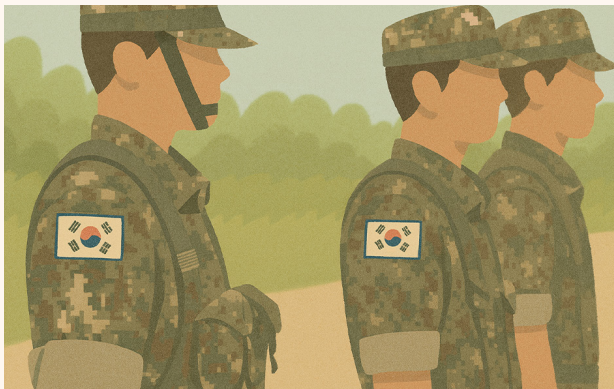
6·25 전쟁의 치열했던 격전지

백마고지 전투

1952년 오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에서는 열흘 동안 주인이 열두 번이나 바뀌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우리 국군은 포탄이 30만 발이나 쏟아지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10월

7



우리 국토를 지키는 힘

육군

대한민국 육군은 나라의 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에요.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워 나라를
지켜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튼튼한 국방력으로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8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며

재향군인의 날

오늘은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예비역 군인, 즉 '재향군인'들을 위한 날이에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그 자부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10월

9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

한글날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자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퍼낸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에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은 한글을 지키는 것을 독립운동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0월

10



중국 땅에서 싸운 최초의 한국인 부대

조선의용대 창설

1938년 오늘, 중국 한커우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어요. 이는 중국 땅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 조직으로, 중국군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10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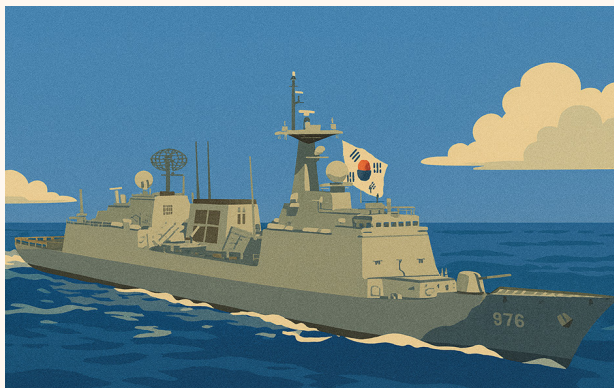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군용기

부활호 첫 비행

1953년 오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군용기 '부활호'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어요.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손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낸 이 날은 대한민국 항공 기술 발전의 희망을 보여준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월

12



우리 바다의 수호자

해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군은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영해를 굳건히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6·25 전쟁 당시 대한해협 해전의 승리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13



백두대간 호랑이 의병장

이강년

운강 이강년 선생은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강원, 충청, 경상 3도를 넘나들며 일본군을 무찌른 위대한 의병장이예요. 그는 전투 중 다리에 총을 맞고 체포되어 1908년 오늘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지만, 그의 불굴의 항쟁 정신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10월

14



우리 하늘의 방패

공군

대한민국 공군은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영공을 수호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6·25 전쟁 당시 ‘빨간 마후라’의 전설을 만들며 조국의 하늘을 지켜낸 용사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10월

15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전투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용맹을 떨쳤어요. 인천상륙작전, 서울 수복 등 결정적인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자랑스러운 부대입니다.

10월

16



유신 독재에 맞선 위대한 함성

부마민주항쟁

1979년 오늘, 부산과 마산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유신체제)에 맞서 거리로 나섰어요. 이는 4·19 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운동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

17



“유신 철폐! 독재 타도!”

부마민주항쟁을 이끈 시민들

부마민주항쟁은 특정 지도자가 아닌,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친 수많은 이름 없는 학생과 시민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부터, 넥타이를 맨 회사원,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10월

18



광복군을 이끈 참모총장

유동열

유동열 선생은 대한제국 군인 출신으로, 신민회의 반일 운동에 참여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어요.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창립에 참여하고 한국광복군의 참모총장을 지내는 등 우리 군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군인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0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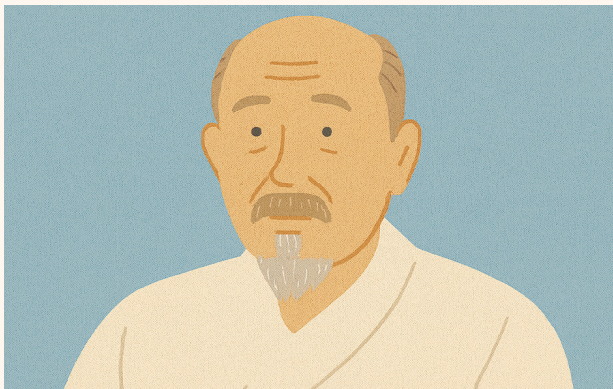
통일이 눈앞으로!

평양탈환작전 성공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파죽지세로 북진하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오늘, 마침내 북한의 수도였던 평양을 되찾았어요. 우리 국군 1사단이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하여,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10월

20



민족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월남 이상재

월남 이상재 선생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이끌며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신간회의 초대 회장을 맡는 등 평생을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10월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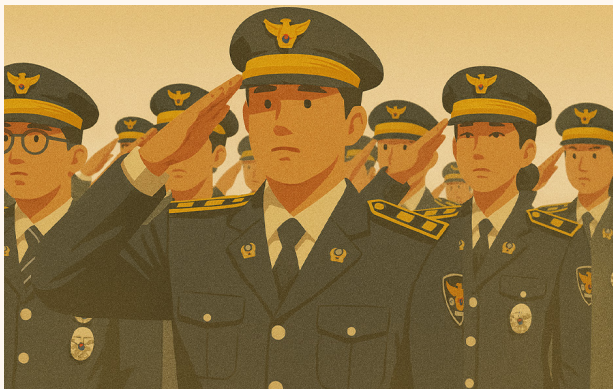
독립전쟁의 기적

청산리 전투

1920년 10월, 김좌진,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 부대는 만주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는 우리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입니다.

10월

22



제복입은 시민, 민중의 지팡이

경찰의 날

청산리 대첩이 시작된 날짜이기도 한 매년 10월 21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경찰의 날이에요. 일제강점기에도 수많은 경찰관들이 독립운동을 남몰래 도왔습니다.

10월

23



청산리 대첩의 숨은 영웅

이범석

철기 이범석 장군은 신흥무관학교 교관 출신으로, 청산리 대첩 당시 김좌진 장군을 도와 북로군정서의 연성대장으로 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숨은 영웅이에요. 그는 훗날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10월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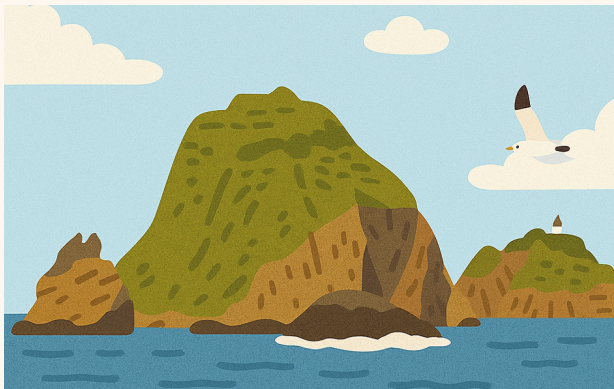
세계 평화를 위한 약속

국제연합일(유엔 데이)

오늘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의 창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6·25 전쟁 당시, 유엔은 우리를 돕기 위해 유엔군을 파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0월

25



우리 땅 우리 섬

독도의 날

오늘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이
에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의 영토입니다.

10월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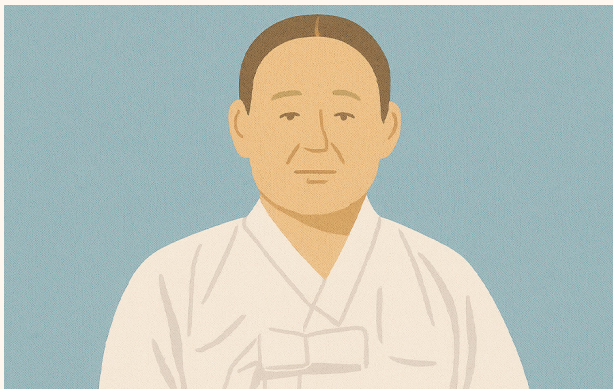
하얼빈에 울린 총성

안중근 의거

1909년 오늘, 안중근 의사는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어요. 그의 의거는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쾌거였습니다.

10월

27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을 앞둔 아들 안중근에게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효도다.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 아들의 의로운 죽음을 격려한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10월

28



실수를 딛고 새 출발을 돕는 사람들

교정의 날

오늘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교도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교정의 날'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랍니다.

10월

29



서로 힘을 합쳐 동양의 평화를 지켜라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재판정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힘을 합쳐 서양 세력의 침략을 막고 동양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동양평화론’을 주장했습니다.

10월

30



종이로 싸운 전쟁

빠라

6·25 전쟁 당시, 남과 북은 총칼만큼이나 치열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수백 종류가 넘는 ‘빠라(전단)’를 비행기로 살포하여, 상대방 병사들의 투항을 유도하고 민심을 흔들려 했습니다. 이 종이 총알들은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중요한 무기 역할을 했습니다.

10월

31



10월의 보훈, O/X 퀴즈로 복습해요!

1. 청산리 대첩은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패배한 전투다.

(O/X)

2.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O/X)

3. 국군의 날은 우리나라 육군만을 위한 날이다.

(O/X)

(古古 卽卽卽 '곤운·폐·농'X) ' / (O) ' / (X) '1:卽卽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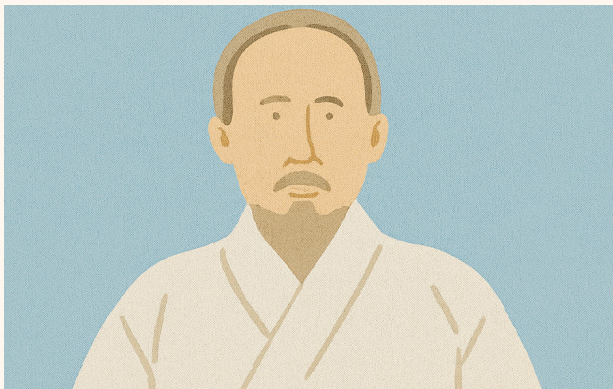
“내가 눈이 멀었을지언정
마음까지 멀었겠느냐?
눈이 멀었을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다.”

심영식

(독립유공자, 1887년 7월 15일 ~ 1983년 11월 7일)

11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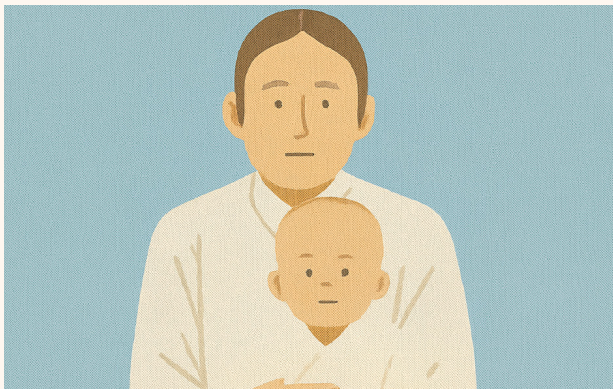
임시정부의 큰어른

박은식

백암 박은식 선생은 <한국통사>를 써서 나라 잃은 슬픔을 잊지 말자고 외친 역사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독립운동가예요. 그는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는 것이 독립의 첫걸음이라 믿었습니다.

11월

2



임시정부의 어머니

정정화

정정화 여사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살림을 도맡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국내에 잠입하여 독립 자금을 전달한 여성 독립운동가예요. 그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임시정부는 어려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

11월



책 대신 태극기를 든 학생들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오늘은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항일 운동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1월

4



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

나주역 사건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우리 여학생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고, 일본 경찰의 차별적인 행동에 학생들의 분노가 커졌어요. 이 사건은 오랫동안 쌓여 있던 차별에 대한 화가 터지며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11월

5



철마는 달리고 싶다

경의선

전쟁 전 서울과 신의주를 잇던 경의선 철로는 분단의 상징이 되어 임진각에서 멈춰 섰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팻말과 함께 녹슨 채 서 있는 기차는, 남북 분단의 아픔과 평화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보여줍니다.

6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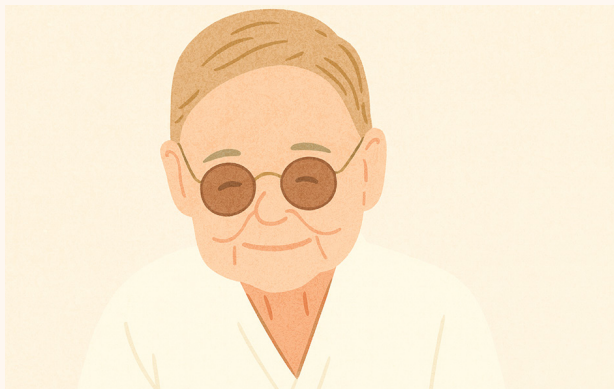
맨몸으로 전선을 지탱한 영웅들

지게부대

6·25 전쟁 당시, 험준한 산악 전선에서는 차량 대신 지게를 이용해 보급품을 나르는 노무수송단(KSC)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지게부대’라고 불리며 총알이 빗발치는 위험한 고지까지 식량과 탄약을 운반했던 이들의 헌신은 전투부대 못지않은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11월

7



“눈이 멀었을지언정 독립의 마음까지 멀었겠는가”

심영식

심영식 지사는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서대문형무소에 갇혔고, 유관순 열사와 같은 감방에서 지내며 열사의 마지막을 지키는 분이예요. 어린 시절 열병을 앓아 시력을 잃고, 모진 고문으로 고막까지 터져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죠. 1980년 오늘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11월

8



항일운동하다 퇴학당한 학생들

학생들의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많은 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되었어요. 국가보훈부는 이런 기록을 찾아내어, 독립운동을 했던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을 오래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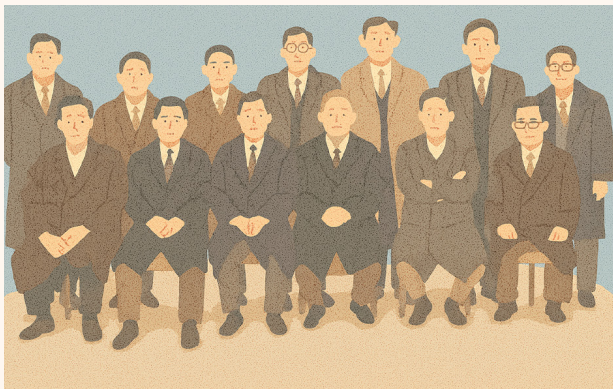
재난 현장 속 국민의 영웅

소방의 날

오늘은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소방의 날’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달려가 우리를 구해주는 소방관들 역시,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1월

10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의열단 조직

1919년 오늘, 김원봉을 중심으로 13명의 청년들이 만주에서 ‘의열단’을 조직했어요.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뜻의 의열단은 조선총독부 폭파 등 과감한 투쟁으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11월

11



부산을 향하여!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일

오늘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날이에요.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1분간 묵념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11월

12



세계 유일의 성지

유엔기념공원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유엔군 전사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세계 평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세계 유일의 성지입니다.

11월

1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창구

조지 루이스 쇼

아일랜드계 영국인 사업가 조지 루이스 쇼는 자신의 회사 '이룽양행'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과 독립 자금 전달을 도운 고마운 분이예요. 국적은 달랐지만, 식민 지배의 아픔을 이해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1943년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월

14



임시정부와 함께한 아이들

임시정부의 아이들

머나먼 타국 땅에서 활동했던 임시정부 요원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 힘든 생활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들은 상하이 인성학교에서 우리말과 글로 역사를 배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키워나갔던 작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11월

15



“민족의 힘을 하나로!”

정우회 선언

1926년 오늘, 당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단체였던 ‘정우회’는 “사상과 이념을 넘어, 모든 민족 운동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의 중요한 선언을 발표했어요. 이 ‘정우회 선언’은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이 신간회라는 하나의 거대한 단체로 뭉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11월

16



부자(父子)가 함께 싸운 의병장

정환직

정환직 선생은 아들 정용기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경북 영천 일대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끈 의병장이예요. 아들이 전투에서 먼저 순국하는 슬픔 속에서도, 그는 흠어진 의병을 이끌고 끝까지 싸우다 체포되어 1907년 오늘 장렬히 순국 하셨습니다.

11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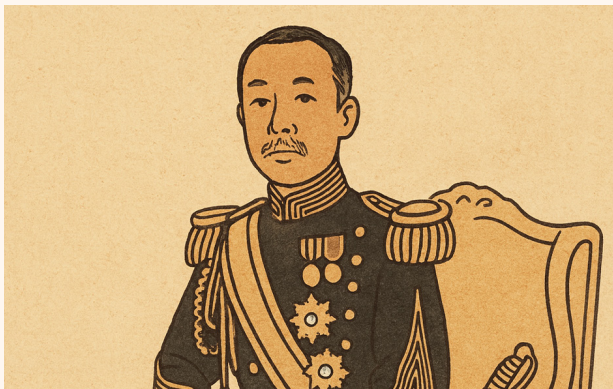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순국선열의 날 / 을사늑약

1905년 오늘, 일본은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또한,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기도 합니다.

11월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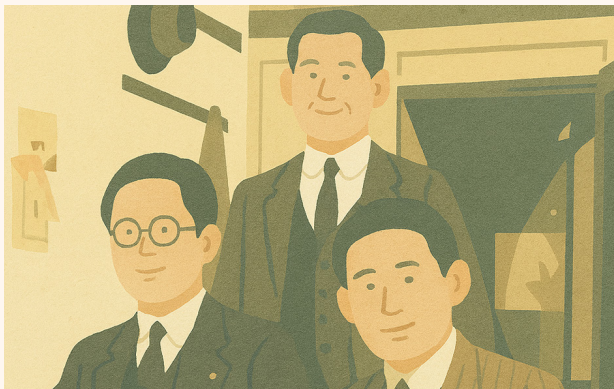
꺼지지 않는 저항 정신

을사늑약 항거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민영환, 조병세 등 수많은 관리와 선비들이 이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들의 죽음은 우리 민족의 꺼지지 않는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슬픈 외침이었습니다.

11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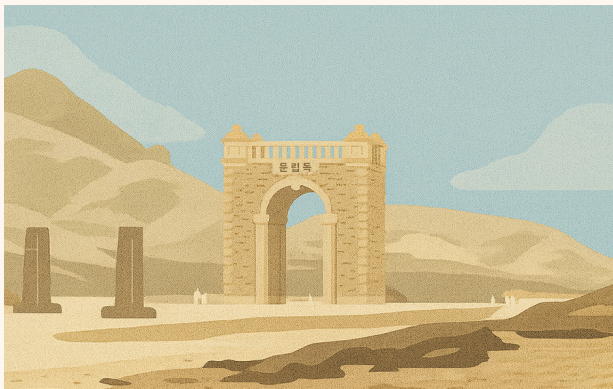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심훈

문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심훈 선생의 시 한 구절로, 광복의
그날이 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는 기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월

20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상징

독립문 건립

1897년 오늘, 독립협회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독립 국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독립문'을 세웠어요. 국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독립문은 오늘날까지 자주독립 정신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11월

21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낸 수비대

독도대첩

1954년 오늘, 홍순칠 대장이 이끈 '독도의용수비대'는 우리 땅 독도를 침범하려던 일본 순시선과 전투를 벌여 격퇴했어요. 6·25 전쟁 직후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독도를 노리던 일본에 맞서, 이들은 정부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 우리 영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11월

22



독도를 지킨 영웅,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

홍순칠 대장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상이군인으로, 독도가 일본에 의해 침탈될 위기에 처하자 동료들과 함께 독도의 용수비대를 조직했어요. 그는 사비를 털어 무기를 사고, 3년 8개월간 독도에 머물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영토를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11월

23



서해를 지키는 영웅들

연평도 포격전

2010년 오늘,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기습적으로 포격을 가해왔어요. 우리 해병대는 즉각 대응하여 용감히 맞서 싸웠고, 이 과정에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안타깝게 전사했습니다.

11월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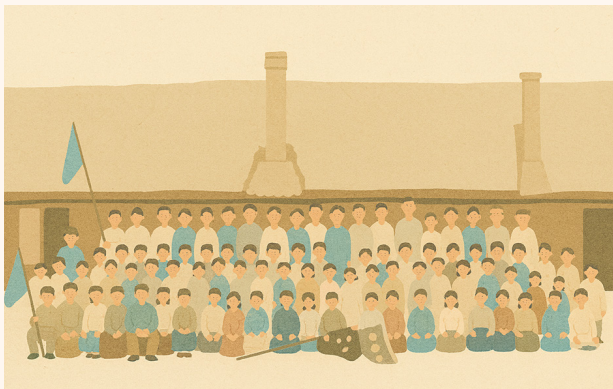
만주 독립운동의 통합 정부

정의부 설립

1924년 오늘, 만주에 흩어져 있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힘을 합쳐 '정의부'를 설립했어요. 정의부는 군대와 정부 조직을 갖추고 만주 지역 동포들을 보호하며, 체계적인 무장 독립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11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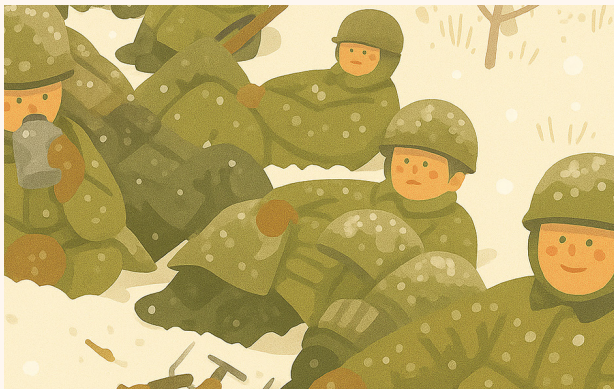
“독립군의 힘을 하나로!”

3부 통합 운동

1920년대 후반, 만주에는 정의부 외에도 참의부, 신민부라는 독립군 단체가 있었어요. 이들은 더욱 강력한 독립운동을 위해 흩어진 힘을 하나로 합치려는 ‘3부 통합 운동’을 벌였고, 이는 훗날 ‘국민부’라는 통합 조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월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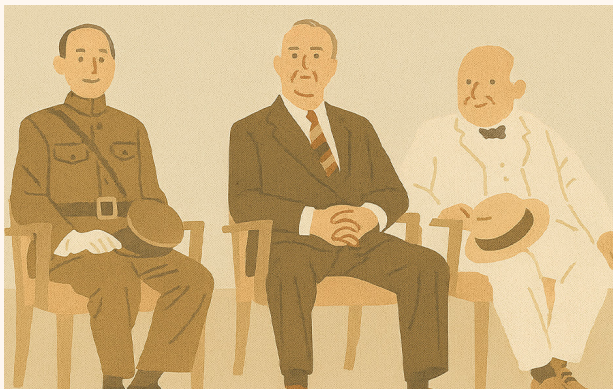
겨울의 기적

장진호 전투

1950년 겨울, 6·25 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장진호 전투가 벌어졌어요. 혹독한 추위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중공군에게 포위된 미 해병대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흥남철수작전의 발판을 마련했답니다.

11월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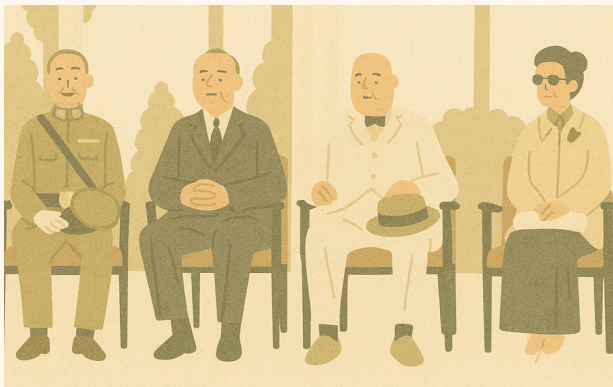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국제사회 선언

카이로 선언

1943년 오늘, 미국, 영국,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겠다”고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약속했어요. 이는 우리 독립운동의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11월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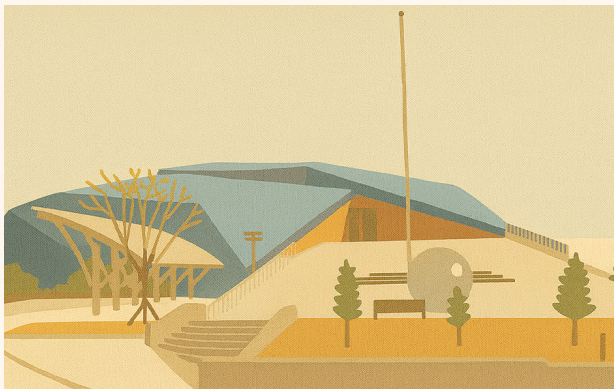
임시정부의 외교 노력

카이로 선언 임시정부의 성과

카이로 선언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독립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세계 여러 나라에 꾸준히 알리고 설득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11월

29



독도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는 곳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울릉도에 있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30



1.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은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0/x)

2. 순국선열의 날과 을사늑약은 관련이 없다.

(O/X)

3.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일에는 서울을 향해 묵념한다.

(0/x)

12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김구

(독립운동가, 1876년 8월 29일 ~ 1949년 6월 26일)

12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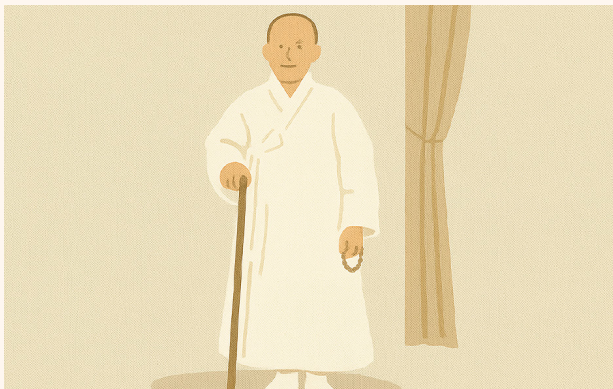
만주의 혹한

독립군의 겨울

추운 겨울 만주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군들은 얇은 옷과 부족한 식량으로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조국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12월

2



매국노를 향한 심판

나철

홍암 나철 선생은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비록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의 용감한 행동은 민족의 배신자를 향한 단호한 응징의 시작이었습니다.

12월

3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

무명 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는 이름이나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비록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모여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월

4



신사참배를 거부한 미국인 선교사

조지 새넌 맥쿤(한국명: 윤산온)

미국인 선교사이자 평양 송실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조지 새넌 맥쿤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양심적인 교육자였어요. 그는 신앙과 학교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학교 폐교와 국외 추방을 감수했으며, 우리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건국훈장을 추서했습니다.

12월

5



“신앙과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다”

조지 새넌 맥쿤 교장의 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송실학교를 지키려 했던 조지 새넌 맥쿤 교장의 말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교육의 자율성과 양심을 지키려 한 용기입니다.

6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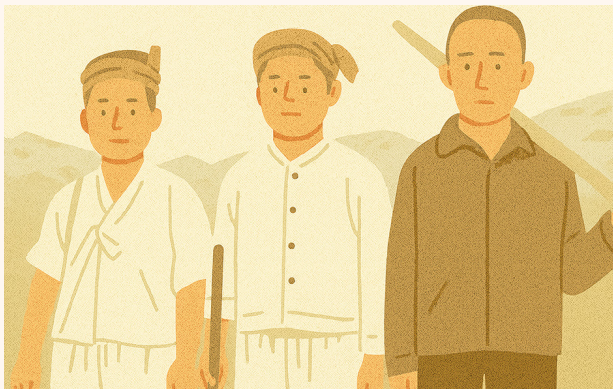
의병, 하나로 뭉치다!

13도 창의군 결성

1907년 오늘,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의병 부대들이 힘을 합쳐 '13도 창의군'이라는 연합 부대를 결성했어요.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일본군을 몰아내고 수도 서울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12월

7



13도 창의군을 이끈 지도자들

이인영

13도 창의군은 총대장 이인영과 군사장 허위 등 여러 의병장들이 이끌었어요. 그들은 신분과 출신은 달랐지만, 나라를 구하겠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 서울 진공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12월

8



태평양전쟁 발발과 우리 독립운동

태평양전쟁 발발

1941년 오늘,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전쟁은 우리 독립운동에 새로운 기회가 되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즉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9

12월



태평양전쟁 속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의 활약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 함께 공동 작전을 펼쳤어요. 인도-버마 전선에 참전하고,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는 등 조국 광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답니다.

12월

10



“우리는 일본과 싸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1941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당당한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일본과 싸우는 연합국의 일원임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12월

11



독립운동가 아내의 위대한 삶

이은숙

이은숙 여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내로, 부유한 삶을 버리고 온 가족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했어요. 그녀는 샅바느질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태고, 그 험난한 여정을 〈서간도 시종기〉라는 기록으로 남겼으며 1979년 오늘 서거하셨습니다.

12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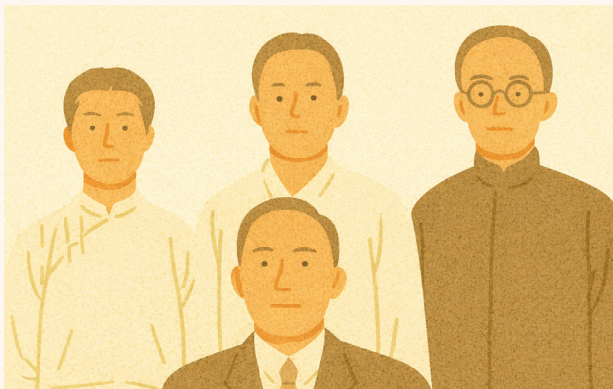
중국에 세워진 우리 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이 작은 건물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7년간 독립의 희망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12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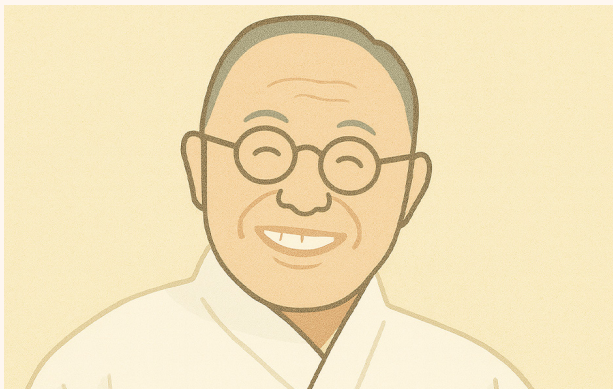
의열 투쟁의 선봉

한인애국단 조직

1931년 오늘, 백범 김구 선생은 침체된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인애국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한인애국단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12월

14



한인애국단을 이끈 민족의 큰 스승

백범 김구

백범 김구 선생은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직접 지휘했어요. 그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외치며,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민족의 큰 스승입니다.

12월

15



독립운동의 교과서

〈백범일지〉 출간

1947년 오늘,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어요. 이 책에는 김구 선생의 파란만장한 삶과 함께,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가 담겨 있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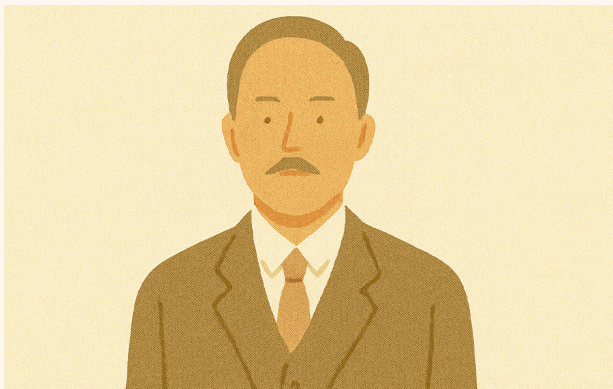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깃든 공간

백범김구기념관

효창공원 안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곳이에요. “나의 소원”으로 대표되는 그의 간절한 나라 사랑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12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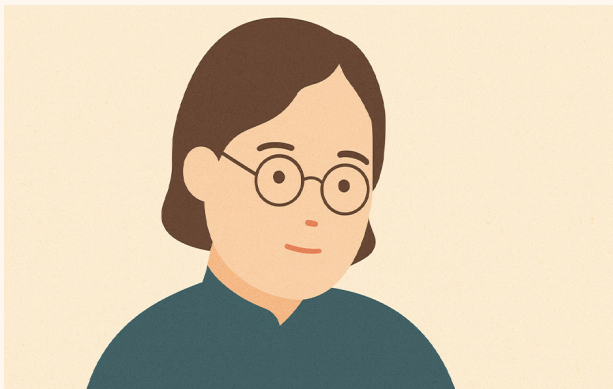
안락한 삶을 버리고 독립을 택한 이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독립운동가 중에는 일본 식민 정부의 판사, 군수 등 높은 관직을 버리고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 분들이 많았어요. 박상진 의사, 이회영 선생처럼, 개인의 편안함보다 나라의 운명을 먼저 생각했던 그들의 고귀한 선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월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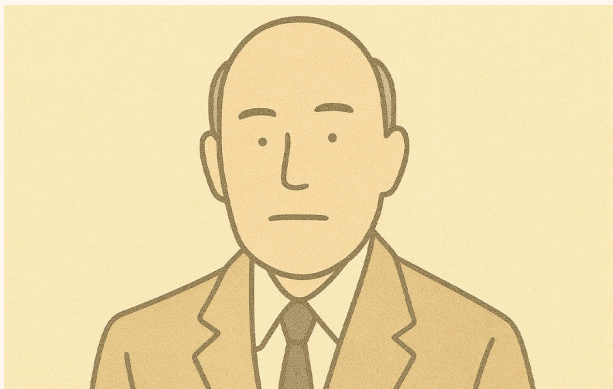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오광심

부군인 김학규와 함께 광복군으로 활동한 부부 독립운동가
오광심 여사의 말로,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을 고통이 아닌
영광으로 여겼던 독립투사의 높은 기상입니다.

12월

19



임시정부와 의열단을 오간 지도자

장건상

소해 장건상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차장과 학무부장 등을 지내면서도 의열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좌우를 아우르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도자예요. 광복 후에는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1986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습니다.

12월

20



전쟁고아 천 명을 구한 한국판 윈들러 리스트

유모차 공수작전

6·25 전쟁 당시, 미 공군의 러셀 블레이즈델 군목은 '유모차 공수작전'으로 천 명이 넘는 전쟁고아를 제주도로 구출했습니다. 포화 속에서 가장 약한 생명을 먼저 구한 이 작전은 국경을 초월한 위대한 인류애의 상징입니다.

12월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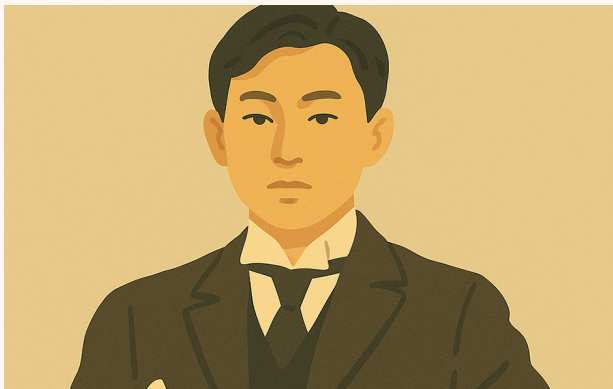
전쟁의 아픔을 노래하다

전쟁 가요

〈굳세어라 금순아〉, 〈전우야 잘 자라〉처럼 6·25 전쟁 당시에는 전쟁의 아픔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노래들은 힘든 시기를 겪던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2월

22



“나라의 원수를 갚으리라”

이재명 의거

1909년 오늘, 이재명 의사는 친일파의 우두머리이자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어요. 그의 의거는 민족의 배신자를 처단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12월

23



전쟁 영웅들의 아버지

월튼 워커

월튼 워커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으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버티거나 죽거나(Stand or Die)”라는 결연한 명령을 내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는 안타깝게도 1950년 오늘, 전선 시찰 중 불의의 사고로 전사했습니다.

12월

24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작전

1950년 12월, 6·25 전쟁 중 중공군에게 포위된 10만여 명의 피란민과 군인들을 구출한 기적적인 철수 작전이에요. 자유를 향한 피란민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인류애의 드라마였습니다.

12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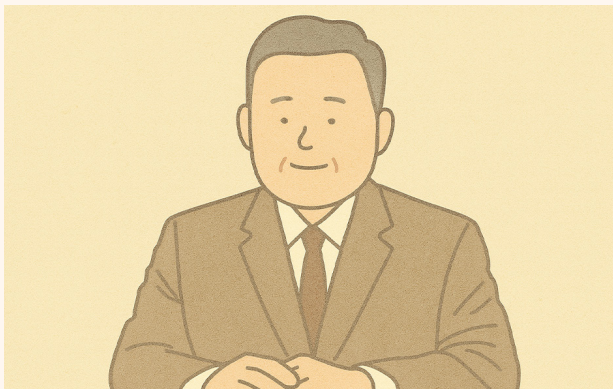
홍남철수작전의 영웅

메러디스 빅토리호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배에 실린 군수물자를 모두 버리고 피란민 1만 4천 명을 태워 기적을 만들었어요. 이 배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항해를 마쳤고, 항해 도중 다섯 명의 아기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12월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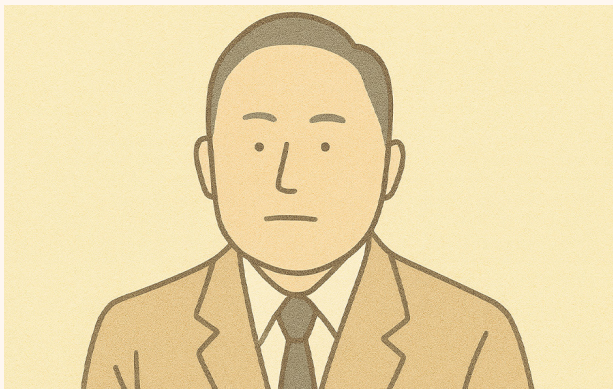
홍남철수작전의 숨은 영웅

현봉학 박사

의사였던 현봉학 박사는 피란민들의 참상을 보고, 이들을 구해달라고 미군 지휘관을 끈질기게 설득했던 숨은 영웅이
에요. 그의 용기 있는 중재와 인류애가 없었다면, 십 만 명에
가까운 피란민들이 배에 오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2월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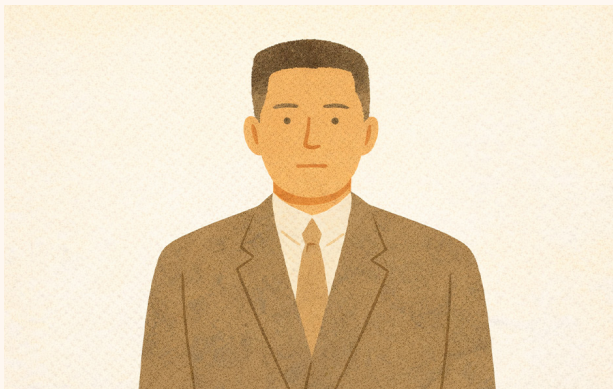
3·1운동 민족대표

박동완

근국 박동완 선생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는 2년간의 옥고를 치른 후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교포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등 평생을 조국 독립에 헌신했습니다.

12월

28



식민지 수탈의 심장을 겨누다

나석주

1926년 오늘,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는 일제의 경제 수탈 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어요. 그의 의거는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일제의 경제 침탈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12월

29



식민지 수탈의 심장부를 겨누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나석주 의사가 폭탄을 던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우리 농민의 땅을 빼앗는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 기관이었어요. 또 ‘조선식산은행’은 우리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일제가 세운 은행이었죠. 이 두 곳을 공격한 것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 먹던 일제의 심장을 직접 공격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2월

30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들

연말 성찰

올 한 해, 우리는 수많은 영웅들을 만났어요.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부터,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민주 유공자까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훈입니다.

12월

31



12월의 보훈, O/X 퀴즈로 복습해요!

1. 13도 창의군은 일본군을 몰아내고 서울을 되찾기 위해 결성되었다.

(O/X)

2. 임시정부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에 항복했다.

(O/X)

3. 이재명 의사는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하는 데 성공했다.

(O/X)

(복합 극지아는 100%를 통유유 'X' 2 / (복합극 통유유 'X') 2 / (O) '1:복합

보훈 일력 365

지은이 국가보훈부

펴낸곳 비온드날리지 주식회사

디자인 김은혜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본 도서는 무료 배포하는 보급판으로 유상 판매 등 영리 목적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